

# 세계평화섬 발전전략으로서 제주평화학 정립과 평화산업 육성연구:

UN의 인권존중과 UNESCO의 평화지향의 논리를 중심으로

고 창 훈\*

## 목 차

1. UN 인권협약과 평화섬 정책의 근원으로서 제주4·3의 재인식
2. 유엔의 인권협약과 유네스코의 자연 문화유산의 기준 그리고 제주 평화섬의 개념
3. 제주 평화학의 정립
4. 제주형 평화산업 육성을 위한 평화증진의 프로그램들
5. 제주형 평화추구의 원리 정립과 실천
6. 결 론

## 1. UN 인권협약과 평화섬 정책의 근원으로서 제주4·3의 재인식

2003년 10월 정부가 4·3진상보고서를 공식 채택하였고, 이에 의거하여 10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제주4·3문제에 대하여 제주도민에게 공식사과하고 아울러 제주도를 인권과 평화를 추구하는 세계평화의 메카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정책지원을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글은 제주4·3을 인권과 평화섬 정책의 근원으로 인정한 한국정부의 인식에 근거하여 국제자유도시의 발전방향, 전략 그리고 정책 프로그램들을 연계시키고 시행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현실적 문제에 대답해 보려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오늘 논의의 첫 번째 핵심은 제주4·3이 왜 인권과 평화섬의 이론적 현실근거가 되는가 하는 점을 인식하는 일이다.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에 의하면 제

\*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교수

주4·3의 피해자는 국가공권력에 의한 폭력의 희생자인 만큼 국가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그 유족을 위로하고 적절한 명예회복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1948년 유엔에서 집단학살(genocide) 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의 정신을 위배한 것이며, 국가 공권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자행된 5차례의 대규모 학살(Jeju Grand Massacre)로 국가에 의한 제주도민에 대한 인권침해를 인정한 것이다. 여기서 제주4·3의 인권개념이 생성된 바, 그것은 반 집단학살(anti-genocide)을 근본으로 하여 약소국가나 양민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유엔의 정신을 계승하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제주4·3은 세계인권의 개념에 합류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논의는 제주4·3이 유엔의 국제협약에 의한 인권의 개념을 발전시키려 하면 유엔이 설정한 국제적 기준에 적합하게 제주국제사회도시의 발전을 위한 유네스코의 준거 틀<sup>1)</sup>을 존중하고 그것을 자연, 문화 그리고 사회 등 전반적인 분야에 적용되고 국제적인 인정을 받아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제주4·3이 유엔이 규정한 반 집단학살의 개념에 의거한 인권개념이라면, 제주

1) 유네스코의 헌장서문을 통해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헌장서문은 다음과 같다. “이 헌장의 당사국 정부는 그 국민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속이다. 서로의 풍습과 생활에 대한 무지는 인류 역사를 통하여 세계 국민들 사이에 의혹과 불신을 초래한 공통적인 원인이며, 이 의혹과 불신 때문에 그들의 불일치가 너무나 자주 전쟁을 일으켰다. 이제 막 끝난 무서운 대(大) 전쟁은 인간의 존엄, 평등, 상호존중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부인하고, 이러한 원리 대신에 무지와 편견을 통하여 인간과 인종에 대한 불평등이라는 교의를 퍼뜨림으로써 일어날 수 있었던 전쟁이었다. 문화의 광범한 보급과, 정의·자유·평화를 위한 인류 교육은 인간의 존엄에 불가결한 것이며 또한 모든 국민이 상호 원조와 상호관심의 정신으로써 완수해야 할 신성한 의무이다. 정부의 정치적·경제적 조정에만 기초를 둔 평화는 세계 국민들의 일치되고 영속적이고 성실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평화가 아니다. 따라서 평화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인류의 지적·도덕적 연대 위에 평화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헌장의 당사국은 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고 평등하게 주어지고 객관적 진리가 구속받지 않고 탐구되며 사상과 지식의 자유로이 교환되어야 함을 확신하면서, 국민들 사이의 소통수단을 발전시키고 증가시키는 동시에,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생활을 더욱 진실하고 더욱 완전하게 알기 위하여 이 소통수단을 사용할 것을 동의하고 결의한다. 그 결과 당사국은 국민들의 교육·과학·문화상의 관계를 통하여, 국제연합의 설립 목적이며 또한 그 헌장이 선언하고 있는 국제 평화와 인류공동의 복리라는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기에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를 창설한다.” 이를 위해 유네스코는 ① 교육을 통한 평화문화 정착, ② 지속가능한 사회·경제개발, ③ 인권의식의 고양, ④ 남·여 평등, ⑤ 지식과 정보 및 참여커뮤니케이션의 지원, ⑥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한다.

의 자연, 문화, 그리고 사회 역시 유네스코의 국제 기준에 부합되게 나아갈 때 4·3에 근거한 인권개념이 보다 균형 있게 발전해 나갈뿐더러 제주4·3의 평화 섬 정책과 일련의 평화산업과 연계되면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현실적 인식이다. 2002년 12월 제주도 한라산이 한국에서는 설악산 백두산에 이어서 세 번째로 생물권 보전지역이 되어 국제적인 보물로 인정되고 국제적인 관리영역으로 설정되었다. 그런가하면 제주도는 제주지역의 오름과 동굴을 2005년 2월 유네스코의 자연유산으로 등재 신청하여 2006년 2월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그리고 제주대학교를 중심으로 제주해녀와 그 민속생활의 연구를 근거로 판소리처럼 유네스코의 인문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려는 준비를 시작했다.

유네스코가 2년마다 대륙별로 모범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해 나가는 도시를 선정하여 '평화도시상'을 수여하여 세계의 도시들의 평화적인 활동을 격려하는데, 제주시가 이러한 상에 2005년 4월 공모하여 평화도시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려 하고 있다.

이렇듯 제주4·3이 역사적인 맥락에서 유엔의 인권존중의 정신을 계승하는 의미를 갖는다면 제주의 자연유산과 인문자산이 유네스코가 제시한 문명적 가치의 기준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제주가 유엔의 인권협약과 유네스코의 사회문화 자연적 가치 기준을 국제자유도시 발전의 현실적이고도 국제적인 준거 틀로 수용해나가는 과정에 이르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제주4·3이 유엔의 인권존중의 정신을 계승하고 제주의 자연과 사회가 유네스코의 발전 기준들을 준거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제주 평화 섬의 지향점이라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지금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청사진과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분야별로 점검하고 제시해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 그 논의는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평가와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 및 그 철학과 문화까지 포함되어야 실천 가능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논의를 수행하는 방법론은 현상학적 통찰에 근거한다. 현상학적 통찰은 제주4·3에 대한 제주도민의 상호 주관적 경험과 맥락에 대한 공통적인 의미를 산출해내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찾아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제주4·3이 유엔의 집단학살을 금지하는 규약에 의거하여 진상보고서가 발간되고, 이제 세계인권의 개념으로 합류하게 되는 데는 제주도민 모두들의 제

주4·3에 대한 경험적 집단적인 슬픔과 공포의 의미, 그리고 그것의 진상을 규명하면서 얻어낸 인권존중의 개념 모두가 도민의 경험, 해석 그리고 재인식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현상학적 방법은 객관적인 통계에 의한 4·3의 피해 그리고 평화섬 정책의 가능성을 논의하기 보다는 오히려 주관적인 경험들의 내면적 의미를 추출하여 제시하는 것이므로 나름의 강점과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방법론적 한계와 4·3을 인권과 평화산업 정책의 한 근간으로 제시하는 논의가 지금 진행 중이며 그 정책 역시 정립하는 단계에 있는 만큼 논의 자체가 시사적이고 시험적이다. 그 만큼 논의가 비체계적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제주도 차원에서 제주4·3을 하나의 근간으로 한 세계 인권과 평화센터로서의 발전 방향, 유엔과 유네스코가 제시한 인권개념, 자연과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 기준들에 대한 존중을 통하여 정책방향과 정책프로그램의 내용 등이 구체화될 수 있을뿐더러 국제적인 기준에 입각한 국제자유도시 제주의 발전방안을 평가하면서 시행해 나갈 수 있으리라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 나름으로 국제자유도시 제주 전반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한 지식인으로서의 문제제기의 의무를 피하지 않는 것이 필자의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 2. 유엔의 인권협약과 유네스코의 자연 문화유산의 기준 그리고 제주평화섬의 개념

### 가. 개인적 경험과 제주 공동체 평화섬 개념의 순환론적 만남

나는 개인적 경험이 어떻게 평화개념으로 승화되고 제주도의 평화개념과 평화학의 발전을 모색하게 되는가를 반추할 필요를 느낀다. 나는 제주도에 22년간 교수생활을 하면서 한 지식인으로서 상황적으로 이러한 주제에 관심을 갖고 일해 왔으며 그 과정은 제주 나름의 평화 섬의 개념과 연관성을 가질뿐더러 국제적인 학자들과 활동가들과의 교류와 이러한 분야의 접근을 한 학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제주 평화섬의 개념이 형성되고 발전될 수도 있기 때문이

다. 1989년 5월 나는 제주4·3연구소를 세우는데 동참하면서 논의가 금기시되었고 역사에 간혀있는 4·3을 말하는 일에 소수의 지식인들과 나서게 된다. 나는 제주4·3은 제주도 사람들이 미군정과 한국정부에 대한 생존권 유지 차원의 저항이었고, 통일정부의 구성에 대한 순수하고도 당연한 지지를 표출한 항쟁이었다는 이론을 제시함으로써 공산폭도의 무장폭동이라거나 반란이었다는 성격 규정에 맞서 항쟁으로 자리매김 하면서 그로 인해 3만에 가까운 제주양민의 대학살을 고발하고 진상규명을 하는 일에 나섰다. 87년 대통령선거에서 정치가인 김대중씨를 통해 4·3진상규명의 과제를 제기한 것이거나 89년 평화의 섬으로 제주의 구상을 제시한 것은 한국적 상황에서 정치적 이슈가 되어야 4·3진상규명이 가능할뿐더러 한 가지 목표에 비폭력적이고 끈질긴 노력과 집중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였다. 88년 노태우 정부는 송악산에 군사기지를 일방적으로 설치하려고 하였는데 그 반대의 선봉에 제주도의 지식인들은 물론 도민들과 함께 나서게 되고 6개월간의 반대운동과 집회 등을 통해 중앙정부의 계획을 보류시킬뿐더러 평화지역으로서의 제주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합의를 얻어낸다(1988.11.23: 한라평화선언문). 1992년 4월 제주4·3학살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다랑쉬굴의 11구의 시신(1948년 12월 18일 사망자)을 4·3연구소가 찾아내고 당시 소장이었던 필자가 발표함으로써 제주4·3의 진상규명을 도민적이고 국민적 공감을 얻을뿐더러 국제적 인식을 넓혔다(요미우리신문: 1992년 6월 9일과 10일). 1994년 4월 4·3희생자들에 대한 위령제와 추모제가 각각 다른 단체에서 열렸는데 제주도 의회의 중재를 거쳐 재야 그룹과 반공유족회의 2년간 협상 끝에 합동위령제로 통합되어 도민 모두가 위령을 하는 추모제로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계기를 거쳐 2000년 1월 제주4·3특별법에 대한민국의 정부에 의해 제정 선포되어 국가적 차원의 4·3진상규명의 계기를 만들어 낸다.

나는 이러한 과정에의 참여를 거치면서 1999년 제주4·3의 국내적 해결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미국정부의 사과 등을 받아내기 위한 국제적 해결을 위하여 제주4·3컨퍼런스를 2001년, 2002, 2003년에 개최하면서 제주4·3에 대한 국제적 인식의 확대근거 마련에 나서게 된다. 이러한 국제컨퍼런스가 4·3의 국제적 해결을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은 물론 4·3을 근거로 한 제주 평화학의 태동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어서 2001년부터 국제적인 기구, 도시, 인물들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이러한 나의 생각을 연결시켜 보기로 하였다. 특히 세

제섬학회(WAIS: World Association for Island Studies)를 1997년 11월 어렵게 창설한 나는 이미 1987년에 호주와 캐나다 등의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구성된 국제섬학회(ISISA: International Small Island Studies Association) 그룹의 연구와 활동에 관해 관심을 갖고 두 학회의 제휴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적극 참여를 하게 된다. 이를 통해서 2008년 제주에서 양 학회 공동으로 대규모의 제10회 세계섬학술대회와 제7회 제주4·3학술대회를 연계시키기로 하고 유치하게 된다. 또 다른 한편 뉴욕의 국제법률가협회의 활동을 통해서 2008년 제주4·3의 유엔에의 제소와 4·3을 근거로 한 국제기구의 창립 가능성을 모색하게 되었다. 평화학 창시자 요한 갈통 등을 중심으로 한 초월 평화교육(Transcend Peace Education)에도 2002년 3월 참여를 하였는데 그의 방법론이 동양적이고 일본과 유럽의 방식을 결합시키는 논리를 인식하게 하였고, 그는 평화초월대회를 창설하여 오스트리아에서 매년 석사 수준의 국제평화교육의 체계를 만든다. 나는 2000년부터 2003년 사이에 노르웨이, 스위스, 네델란드 평화연구소 등의 활동,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히로시마, 교토, 코스타리카의 산호세 그리고 오키나와와 대만, 그리고 광주 의 평화 활동 흐름과 방향을 목도하면서 왜 유럽이 평화문화의 추구에 앞설 수밖에 없는가 하는 점을 느꼈는데, 그것은 평화추구의 오랜 전통과 충실한 내용 그리고 발전된 민주주의에 근거한 평화문화의 정착에 대한 개인적인 차원의 노력들에 있다는 점을 깨닫는다. 개인적으로 스위스의 제네바, 로잔, 취리히를 방문했을 때 여기가 진정으로 세계의 평화의 섬이구나 하는 생각이 다가왔다. 아마 제주도가 100년 이상을 노력해도 여기에 까지 이르는 힘들 것이라는 생각과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노력해 나가면 어느 정도의 틀은 잡을 수 있으며 동북아시아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하는 평화의 섬이 가능하리라는 생각을 가졌다. 사실 세계평화도시의 모범국인 스위스는 평화추구의 전통과 활동이 170년 이상이 된다는 점에서 개개인이고 그리고 조직이 그리고 도시가 평화추구의 전통의 주체로서 세계평화의 담당자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국제기구의 본부를 대다수 갖고 있음에서도 드러난다. 노르웨이, 스웨덴 그리고 네델란드 등도 100년의 전통을 수립하며, 노벨상과 국제사법재판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각 분야마다 평화학이 접목되어 있고 평화교육이 나름대로 특성화되어 세계의 평화중재국으로서 그리고 또 다른 평화지역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일본의 경우 입명관 대학교 중심의 평화

연구소, 히로시마의 평화연구소, 나가사키의 국제문화회관 등을 중심으로 평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데 연구소나 재단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다. 그들은 제도를 키워나가면 평화이미지가 형성된다고 보고 있지만 한가지의 한계는 분명해 보였다. 즉, 일본제국주의가 저지른 원죄에 대한 사과나 해결을 하지 않은 채 평화추구를 하는데서 오는 한계점 같은 것이었다. 오키나와는 이러한 것에 비교적 부담이 적지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이러한 한계점이 있어서 북유럽의 평화추구의 전통보다는 자유롭지도 역동적이지도 못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일본의 경우를 볼 때 제주도가 나름대로 장단기 목표를 잡고, 특히 지식인들이 앞장서서 노력한다면 제주지역이 동북아시아권의 평화지역으로의 역할이 가능하다고 느꼈다. 2001년 2월 나는 마셜아일랜드 공화국 등 여섯 개의 섬 지역을 방문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특히 그 섬의 운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미국의 힘을 느끼게 되었는데, 미국에 공군과 해군기지를 조차해주는 댓가로 그 섬의 경제력의 50% 가까이를 충당하는 사실이었다. 아울러 미국의 핵 실험으로 비키니 섬 자체가 없어졌는데 그 섬으로의 여행 역시 금지되는 것이어서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하와이-마셜군도-괌-사이판-오키나와로 이어지는 태평양지역의 미국 군사력의 편성과 그 섬들의 경제가 미국의 힘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섬의 자생적 경제구조의 확립에 어두운 전망을 갖게 했다. 사이판이나 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경제력 등을 이유로 아예 주민들이 미국의 속국이 되기로 하였고, 마셜 공화국의 경우 정치적으로는 신생 독립국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절대적으로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오키나와의 경우 일본에 속해 있으면서 미군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아직도 높다. 이러한 이유로 오키나와가 상대적 독립을 주창했던 마사히데 오타 지사는 1998년 선거에서 실패한다. 이러한 지역의 평화추구의 현실적인 목표는 경제적 생존이겠지만 정치적으로 일을 하려면 섬 지역끼리 연대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

이 기간에 특별히 주목한 또 다른 곳은 남미의 코스타리카였다. 그 나라는 1948년 군대제도를 폐지하는 평화헌법을 제정하고 그 이후 평화추구의 전통을 세워나가고 87년 불안정한 중남미 6개국간의 중남미 평화헌장(The Central America Peace Code)을 채택하고 그 지역의 평화추구를 견인해 나가는 중립국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당시 대통령이었던 오스카 아리아스는 이 업적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다. 이 나라의 평화추구를 연구하면서 나는 통일 한

국의 미래를 3개국 통일한국(United Three States of Korea)을 제안하게도 된다(고창훈, 2001).

2003년 4월 나는 하버드 대학교 법과대학과 한국학 연구소 등과 공동으로 4·3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제주4·3에 대한 미국학자들의 관심과 연대를 갖게 되어 4·3의 국제적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게 된다. 이때 미국학자들로부터 미국정부가 제주4·3 학살에 대하여 한국정부와 동일한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한다는데 동의와 공감을 얻어낸 것은 훗날 큰 의미를 갖게 되리라고 생각했다.

아울러 2003년 7월초 세계정치학회의 발표에의 참여를 계기로 남아공화국을 방문할 수 있어서 남아공화국의 평화사상의 흐름과 평화추구의 노력을 접하게 된다. 특히 넬슨 만델라, 투투 대주교, 마틴루터킹 등의 인권 평화운동이 마하트마 간디의 비폭력 운동과 그 맥을 같이하며 인권운동이 뻗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도 감동적이었다. 이를 계기로 2006년 7월 제주4·3컨퍼런스는 국제정치학회의 후쿠오카 세계정치학대회와 연관된 컨퍼런스로 가져가게 된다.

한편으로는 1991년 한미정상이 제주에 열리게 되고, 문정인 교수 등을 중심으로 국제정치적이고 지정학적인 맥락에서 세계평화의 섬 지정논의가 학술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흐름 역시 지속되어 2000년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세계평화의 섬을 규정하는 항목으로 포함되고 2001년과 2003년 제주평화포럼으로 이어지고 증문단지 내에 밀레니엄 기념관이 지워지고 세계평화연구를 수행할 계획을 제시하면서 동북아평화연구의 한 중심으로 나아갈 방향을 잡아 나간다. 1회 대회에 앞서서 지켜보면서 이러한 구상은 한국중앙정부가 제주도를 국제정치학적 차원으로 지원하는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느꼈다. 그러나 과제는 여기서의 평화개념은 국제교류의 장으로서의 제주라는 일반적인 생각 이상의 개념은 잡히지 않았고, 주로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중국, 한국의 정치인 중심의 국제정치적 네트워크 구성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점을 느꼈다. 다만 이러한 일들이 군축관련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것과 연결된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이러한 과정들의 참여와 관찰 경험을 거치면서 1992년 6월부터 1994년 6월 한국의 안기부에 의해 4·3을 말하고 중앙정부에 저항하였다는 사실 때문에 재판을 받는 권력으로부터의 수모를 경험한다. 그 때 줄곧 생각한 것이 정

말로 제주도가 4·3의 고통을 딛고 세계평화의 섬이고자 한다면 그 중심 개념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과 씨름하게 된다. 그것은 개인적인 차원의 이론적 탐구에서는 제주4·3연구와 진상규명운동 10년의 성찰을 의미하였고, 그 근거는 왜 제주가 평화의 섬을 지향하고 무엇이 제주의 평화 섬을 만들게 하는가에 대한 스스로의 대답이 있어야 평화의 섬에 대한 나의 구상과 정책목표를 제시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우선 그 해답은 제주의 고통의 역사로부터 그리고 수많은 학살을 당한 섬사람으로 자신의 땅의 평화를 지키고 타인의 인권을 존경하는 섬의 寬容性 철학이라고 확신하게 된다. 이러한 섬으로서의 제주도에 대한 특수한 경험과 개인적 성찰은 세계의 다른 섬으로서의 성찰로 이어지는데, 그 첫 시도는 1994년 6월 세계 섬 문명의 발상지인 크레타 섬의 성찰이었다. 지금은 고인이 된 그리스 철학전공하면서 아테네대학교 교환교수였던 권창은 교수로부터 그레테 철학의 흐름을 같이 생각해 보았고 내 나름대로 생각한 섬사람들의 寬容性의 철학을 여러 각도에서 생각하게 되었다. 그 후 2004년 5월 호주의 타즈메니아 섬까지의 여정을 거치면서 늘 생각해 온 것은 섬사람들의 寬容性 철학에 근거한 평화사상과 평화문화의 정립 같은 것이며, 그것이 섬 민주주의의 근거로서 다시 섬 사회를 새롭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왔다. 왜냐하면 이러한 섬 연구와 성찰을 통하여 얻은 것은 세계의 모든 섬과 섬사람들은, 대륙인과 비교할 때 오히려 관용적이라는 점이었다. 다만 섬사람들이 그들의 생존이 위협받을 때 그것을 지키기 위해 저항한 것인데, 오히려 이것을 대륙이나 반도에서는 섬사람을 폐쇄적이라고 왜곡시켜 왔다는 근거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약자인 섬이 오히려 세계의 역사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 寬容性을 가지고 자기 것을 최대화하면서 외부세계와의 평화증진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 4·3대학살의 교훈이었다. 1994년 나는 이러한 맥락에서 제주도는 평화자치도로 위상을 정립하고 한반도 뿐 만 아니라 세계 섬들 간의 평화교류를 해나가야 한다는 정책방향과 논리를 제시한다. 이러한 평화자치도의 논리는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을 위해 제주도가 평화섬으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과 북한 제주도공화국을 연합하는 한국통일연합국 (United Three States of Korea)으로 실천되어 한다는 구상이 그것이다.

이러한 한반도의 미래구조와 더불어 제주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나아가려면 유엔기구와 연결된 기구로 세계섬 유엔을 창립하여 그 본부를 제주도에 두

는 정책을 추진해야 세계 섬들 간의 교류와 이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구상을 말하게 된다. 이러한 확신은 2002년 6월 캐나다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서의 세계학술대회의 한 발표자가 마카렛 미드 여사의 사모아 섬 사람들에 대한 현장연구를 중심으로 섬 사람의 심리학을 분석 설명하였는데, 그 논리는 나의 섬 사람들이 갖고 있는 寬容性的 논리를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나는 2003년 12월 영문 국제잡지 피스아일랜드를 창간되어 도시와 섬들 간의 평화네트워크와 평화문화의 공유를 표명하게 이룬다. 그리고 2004년 봄과 여름 2005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국가균형특별법에 의한 제주평화학 정립과 평화산업의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연구와 목표를 구체화하여 제주지역 나름의 준비를 해야 제주가 동북아의 평화거점으로 자리 잡는 데 기여를 하고 싶다는 작은 희망을 구상하고 모색한다.

여기서의 중심 내용은 제주평화학의 근간으로서 평화연구와 이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평화섬 시리즈 발간, 평화학교를 통한 평화교육의 실천, 평화문화 축제 등의 시행을 골자로 하되 이를 근거로 평화촌의 건설과 평화브랜드의 디자인 산업 등을 담고 있다.

나의 개인적인 현장 경험과 연구가 4·3연구, 세계 섬들에 대한 통찰, 세계의 평화도시와 지역에의 흐름 그리고 평화 섬으로의 방향정립 등의 생각이 18년간의 시간과 5개 대륙의 섬과 도시에 대한 관찰이 결합되면서 개인의 경험을 넘어 제주 평화 섬의 개념을 형성하고 평화연구와 교육의 방향을 찾아나가는 문제를 제주도민 모두의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질문과 과제를 맞이한다. 왜냐하면 나의 경험은 제주지역을 근거로 한 것인 만큼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중앙정부의 정책과 조화를 이룰 뿐더러 지역주민, 지방대학교나 지역기초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역량을 갖추고 스스로의 대안을 창출해나갈 때 제주평화학의 정립도 가능하고 세계평화의 섬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상승시키면서 지역의 평화문화를 성숙시킬 수 있었으면 하는 고민에 그 뿌리를 두고 있어서이다.

#### 나. 평화섬 개념의 네 가지 측면

제주도가 2000년 제주개발특별법에 이어 2002년 국제자유도특별법에 세계 평화섬으로 지정을 명문화하고 이를 실천하는 정책프로그램을 실천하도록 규정

한 조항에 근거하여 제주도가 2004년 가을 세계평화의 섬 지정을 선언하고 평화적 역할을 국제자유도시 시대의 이상 중의 하나로 설정한다. 이러한 추진 전략에는 대략 네 가지 역할정립의 과제가 내포되어 있다고 본다.

첫째로 생활사적으로 볼 때 일상적으로 자연으로부터의 평화적인 자연적 분위기와 사회문화적 전통이나 흐름에서 평화적인 삶을 만나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을 통칭하여 平和思想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주도의 신화의 구조를 볼 때 다른 지역에 대한 침입이 아니고 자립자족을 강조하고 있는 점, 남신과 여신의 평화로운 공존, 제주문화적 공동체가 평화를 지향하는 점 등이 제주도가 섬 공동체에서의 평화로운 삶을 지향한다는 점과 연관이 된다. 이러한 제주공동체의 내면적인 가치체계가 민요나 민속 등의 생활사 전반에 널리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정하은 교수는 三無思想을 三麗思想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三無思想을 三麗思想으로 바꾸어 불러야 그 의미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제시하였다. 이는 제주 공동체가 공동체적 삶을 가꾸어 오면서 지향한 본질적 가치인 自主, 平和, 自由 사상이 삼무적 전통적 삶 속에 내재되어 있었음을 설파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의 해석에 따르면 거지가 없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은 '물불평칙 명일(物不平則鳴一)'의 경지를 체득했다는 것이다. 즉 재물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리가 난다는 의미인데 제주도민들은 서로 도우면서 동등한 삶을 향유하지 못할 때 공동체가 붕괴하는 것으로 自主思想을 생활화했다는 점이다. 4·3이후 6년간 비상계엄령이 해제될 때까지 6년간(1948-1954) 한 사람의 걸인도 만들지 않고 모두가 도와가며 살았다는 것은 이를 입증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도둑이 없다는 것은 침략성이 없다는 것으로서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제주 섬 사람들 마음에 내재화 되어서 그러한 것인데, 이렇게 도둑이 없는 섬에 강탈과 침략이 일어나면 당연히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저항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일이 제주 사람들의 평화사상에 근거하는 것이다. 대문이 없다는 것은 자유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인데 인간과 인간, 인간과 동물,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에 서로의 삶과 존재에 대한 자유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자유사상이 있어서라는 것이다(정하은, 1989. 119-131).

둘째로 역사적으로 생성되어진 平和思想은 공동체 사회가치의 내면화와 연관이 깊다면 역사적으로는 외부세계와의 관계속에서 이러한 측면이 나타나게 된다. 특히 외부세계의 부당한 침략이 있을 때 섬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 저항

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몽고의 침략이 있었을 때 몽고와 고려연합군과 맞서 삼별초 세력과 항몽투쟁을 한 것이라든가, 중앙관료세력과 가톨릭의 부당한 세금 징세와 제주도적 가치의 억압에 저항한 1901년 이재수 장군주도의 제주항쟁, 1931년 일본제국주의의 부당한 생존권 위협에 맞선 잠녀항쟁, 그리고 1948년 제주4·3당시 민족통일 문제와 생존권 문제에 대한 저항 등을 볼 수 있다. 아울러 1988년 송악산 군사기지 반대투쟁이나 2002년 화순항해군기지 반대운동 역시 제주지역이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자신의 지역을 평화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려는 도민적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셋째로 제주가 지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에 있으므로 인해서 부여된 국제적 역할을 규정한다고 보여진다. 1600년대 중반 제주도가 분쟁을 해결하는 땅의 의미의 켈파트(Quelpart)라는 이름으로 유럽에 알려진 사례나, 1990년대 이후 외국인 수상이나 대통령이 방문하는 정상외교의 최적지로 선호됨으로써 정상의 집 건설 등 일정 정도의 외교적 역할을 수행하는 장소로 인식되고, 그에 부합한 역할을 추구해야 된다는 논리로 발전하는 점 등도 지정학적 위치로부터 나타나는 평화섬의 국제정치적 역할 논리라고 보여진다. 이와는 달리 20세기 초반 부 일제, 그리고 미군정시대, 대한민국 시대를 거쳐 제주도의 모습포 일대를 군사기지로 사용했던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나 1988년 송악산 군사기지 설치 추진 및 2002년 화순항 군사기지 설치 추진 등의 사례는 군사기지로서의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했거나 사용하려는 것으로 보여진다.

넷째로 지역과 국가정책적 맥락인데 앞의 세 가지 요소를 유념하면서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켜 세계화의 거점지역으로 형성하려는 현실적 노력이다. 남한의 서울, 부산, 인천 등의 세계화의 경험과 북한 신의주와 개성 등의 개발전략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대목이다. 이러한 정책적 고려는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관광중심의 사고에서 평화 중재, 교류 및 평화교육의 거점으로 발전시켜 동북아거점의 세계 평화의 섬으로 자리 잡아 나가려는 차별화전략을 국제자유도시로서의 목표로 설정하려는 움직임이다. 남북한과 동아시아의 평화교류와 외교의 거점으로 발전시켜 보려는 국제정치적 맥락은 평화추구의 전통을 세워 나가는 프로그램의 체계화를 요구한다. 즉, 제주도가 평화문화추구의 전통 위에서 평화산업(Peace Industry or Business)의 큰 목표를 갖고, 국제관광의 토대 위에서 스포츠 산업, 회의 산업, 그리고 평화교육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하

는 과제를 결합시켜 나가면서 스위스의 제네바, 로잔, 북구의 오슬로, 헤이그, 스톡홀름, 남미의 산호세 시 같은 평화역할을 수행하는 미래를 열어 나가려는 움직임이다. 이러한 역할 정립의 요구는 대한민국의 작은 한 지역으로서 분쟁과 고통의 역사적 경험이나, 주변으로서 중앙의 결정을 집행하는 의존적 사고가 아니라, 제주 지역이 동아시아의 평화추구의 전통을 쌓고 평화적 역할을 정립해 나갈 수 있는 사고의 전환과 역사 창조의 새로운 방향을 잡아나가야 한다는 점을 말해 준다.

위와 같은 네 가지 요인의 상호작용 속에서 제주도의 평화섬이 개인적 경험들의 축적과 공동체적 순환을 거치면서 논의되고 생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그 개념 역시 앞의 요소가 내포하는 포괄적인 내용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본다.

제주도민의 평화개념은 제주도민이 역사와 문화의 현실속에서 생활사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지역공동체의 고통과 고난을 승화시킨 평화사상과 문화에 기초하여 제주섬 공동체, 세계 섬지역 사회, 한반도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 평화추구의 전통과 역할을 수행하려는 주객관적 요소를 포괄하면서 평화추구의 전통을 세워나가고 제주형 평화산업을 이루어가려는 일련의 사고체계와 정책 및 전략 등을 포괄하는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정신체계를 말한다.

### 다. 평화섬 정책의 실질적 지표로서의 유네스코문화와 자연유산 등에 대한 기준의 활용

앞에서도 논의했지만 필자는 제주4·3이 유엔의 국제협약에 의한 인권의 개념과 부합되게 발전시켜나가려면 유엔이 설정한 국제적 기준에 적합하게 제주국제사회도시의 발전을 위한 유네스코의 준거 틀을 존중하고 그것을 자연, 문화 그리고 사회 등 전반적인 분야에 적용되고 국제적인 인정을 받아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제주사회의 총체적 발전의 기준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제주4·3이 유엔이 규정한 반 집단학살의 개념에 의거한 인권개념이라면, 제주의 자연, 문화, 그리고 사회 역시 유네스코의 국제 기준에 부합되게 나아갈 때, 4·3에 근거한 인권개념이 보다 균형 있게 발전해 나갈뿐더러 제주4·3의 평화섬 정책과

일련의 평화산업과 연계되면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현실 인식이다.

2002년 12월 제주도 한라산이 한국에서는 설악산 백두산에 이어서 세 번째로 생물권 보전지역이 되어 국제적인 생물권으로서의 보존가치를 인정받고 국제적인 관리영역으로 설정되었다. 그런가하면 최근 발견된 5만년전 사람과 동물의 발자국과 서귀포 하논의 이중 분화구가 거의 동시에 발견되어, 이러한 유적과 더불어 제주도의 동굴과 오름 등이 유네스코의 자연유산으로 2006년 2월 등재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제주해녀와 그 민속생활 역시 제대로 보존해 나아간다면 판소리처럼 유네스코의 인문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는 문화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유네스코가 2년마다 대륙별로 하나의 모범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해 나가는 도시를 선정하여 '평화도시상'을 수여하여 세계의 도시들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격려하는 데, 제주시가 이러한 목표를 갖고 발전해 나간다면, 그 자체로서 평화도시상 수상 이상의 의미를 가지리라 본다.

유네스코는 이외에도 국제적인 상을 제정하여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인류 문화발전, 자연보전, 예술진작 그리고 국제 평화에 기여한 조직이나 개인들에게 상을 수상하고 있다. 이 중 인권교육상은 1978년에 창설하여 인권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활동을 한 개인이나 단체, 기관을 6개월 주기로 선정하고 격려하고 있는데, 이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세계인권선언 30주년에 관한 결의 3(33)에 따라서 유네스코가 실천하는 경우이다. 유네스코 평화교육상의 경우 1981년 창설되어 인간의 마음에 평화를 건설하고, 평화를 위해 여론을 일깨우며 인류의 양심을 촉구하는 모든 활동을 1년을 주기로 하여 시상한다. 그리고 MAB 청년과학자 상(MAB Young Scientists Awards)은 1981년 창설하여 생태계와 물을 주제로 하여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실행되는 연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의 설립배경은 유네스코 인간과생물권계획(Man and the Biosphere Program MAB) 사업의 하나로 청년 과학자들(특히, 개발도상국)이 MAB 연구 및 사업 지역과 생물권보전지역을 그들의 연구에 활용하거나 기존에 행해진 연구와의 비교 연구를 장려하고, 신세대 과학자들 간의 정보와 경험의 교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신청자격은 만 35세 이하이며 한 국가에서 3명을 추천할 경우 한 명은 40세 이하(2003. 5. 30 기준) 가능하다.

특히 평화도시상(UNESCO "CITIES FOR PEACE" PRIZE)의 경우 1997년 시작되었다. 그 목적은 황폐한 이웃의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단절을

강화하고자 6대륙의 다섯 개의 도시의 모범적 활동을 찬사하고, 혁신적 독창성이 있는 데이터 뱅크의 개발과 대도시간의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할 목적으로 운영된다. 수상주기는 일년에 두 번이며 아프리카, 아랍연합, 아·태평양,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다섯 지역의 수상 도시의 시장에게 수여되고 있다. 상금의 액수인 미화 \$25,000 과 상장이지만 실질적으로 한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초점에 맞추어진다는 점에서 제주시가 준비하여 2005년 4월 공모에 응모하는 일은 그 수상여부를 떠나서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 3. 제주 평화학의 정립

#### 가. 제주평화학의 근거와 내용구성

한 지역이 평화추구와 평화문화를 진작시켜 나가고자 할 때 그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근거가 명백할 뿐더러 이를 근거로 나름대로 평화연구와 교육을 시행하고 이러한 주제에 대하여 국제적 확산을 위한 평화컨퍼런스의 정례화와 청년과 청소년을 평화캠프의 정례화를 연결시키고 발전시키면 이는 제주평화학의 기틀을 마련하고 인재육성의 교육체계를 마련해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제주평화학의 내용을 구성해 나가려면 대략 역사, 문화, 자연, 국제정치, 제주형 평화도시학, 평화문제에 대한 응용 분야에 대한 연구 등을 수행하면서 각각의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출판활동을 통하여 그 내용이 알려져 나가야 한다.

우선 역사로부터의 평화학은 제주현대사의 평화연구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4·3과 그 이전의 제주사의 연구를 시대별로 또는 총체적으로 성찰하여 2천년 역사 속에 있는 평화사상의 근거를 찾아내고 해석해 내는 작업이다. 또한 제주가 한반도에 속해 있는 바 이에 영향을 준 한국의 평화상, 예를 들면 원효의 一心思想, 안중근의 아시아 평화사상, 함석헌의 平和思想, 김구의 平和 統一思想 등을 체계적으로 영문으로 출판하여 제주평화학의 내용으로 수용해 나갈 수도 있다. 또한 제주도과 비슷한 섬이라는 조건에서 살면서 지역의 평화를 이루어 갈려는 평화사상가 등의 연구를 통하여 섬이나 해양지역의 평화사상을 공유해 나가는 작업도 포함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은 군국주의적 사고를 갖

고 있지만 이러한 사상에 맞서온 평화사상가나 작은 지역의 평화를 위해 평화 운동을 전개하는 사상가의 책을 선택하여 번역하는 작업 역시 가능하다고 본다.

제주 4·3과 관련지어 말한다면 4·3이 갖고 있는 인권적인 근거와 한반도의 통일에 근거를 이루는 연구, 4·3을 고발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 소설의 번역, 그것을 근거로 평화추구의 논리를 갖추어가려는 연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둘째 문화로부터의 평화학은 섬 사회나 해양지역의 평화문화를 창출하는 연구와 총서 발간으로 이어진다. 제주도의 경우를 예로 들면 제주신화에 대한 평화사상적 측면의 연구, 제주의 문화인 삼무전통에 대한 연구와 해석, 제주민요나 민속에 대한 연구, 그리고 제주해녀와 제주의 평화문화에 연구를 통해 섬 평화학의 사회 문화적 근거를 정리하는 작업이 된다. 물론 이러한 연구는 제주 섬에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문명의 근거지로서 크레타, 새로운 독립국가로서의 동티모르, 태평양 지역의 마셜 아일랜드 등 세계의 섬사회의 문화 속에서 평화적 요소를 찾아내는 연구를 포함시킬 수 있다. 마카렛트 미드는 서사모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섬사람의 가능성을 찾아냄으로써 단순히 미개인으로 취급되는 인식을 바로 잡았을 뿐더러 남녀간의 평등하다는 점까지도 찾아내었다. 우리는 이러한 섬 사회의 평화적 문화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고 섬지역의 평화문화로 채워나갈 것이다.

셋째 자연으로부터의 평화학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 그리고 자연 그 자체의 가치를 그리고 이를 보존 관리하는 연구로부터 평화의 개념을 찾아 나가는 연구와 출판이 될 것이다. 제주도를 예로 들 경우 한라산 생물권 보존지역, 동굴, 오름 및 화석 등의 연구, 제주도의 해안선에 관한 연구, 우도, 가파도, 마라도, 등 작은 섬에 대한 연구 등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제주도 자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 이를 근거로 다른 나라 특히 해양지역의 자연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자연유산이나 자원에 대한 세계적 가치를 체계화하고 공유해 나가고 아울러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찾아냄으로써 자연으로부터의 평화개념을 정립하는 작업이다.

넷째 국제정치로부터의 평화학은 한국의 평화학, 세계의 평화심, 남북 평화, 동북아의 평화 역할을 수행하는 지정학적이고 국가정책적 맥락의 연구 작업을 말하는 것으로써 이에 대한 연구를 발굴하는 작업도 가능하리라 본다.

다섯째는 섬이나 해양지역에 위치한 도시를 중심으로 평화연구를 해나가고 이를 출판화함으로써 세계의 해양 도시 간의 평화연구와 비교 및 평화추구의

역할 공유를 위한 노력 등의 연구가 포함된다.

여섯째는 평화문제, 평화시설이나, 기구 창립, 유치 및 운영 등에 연구를 통해 실제적인 평화활동에 도움을 주는 연구를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 예를 들면 제주지역의 경우 모슬포 송악산 일대 국방부 소유의 땅에 있는 일제시대 비행장의 격납고 20기를 복원하여 역사관광코스로 편입시켜 나가면서 세계평화촌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업을 원하는데 이를 구체화할 할 수 있는 연구를 지원할 수가 있다. 아울러 제주도의 경우 국제기구의 창립이나 유치를 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제기구의 실태나 운영에 대한 조사 연구 및 이러한 기구의 유치 등에 관한 연구를 이러한 범주에 포함시켜 나갈 수가 있다.

디자인 등 분야의 경우 제주의 평화이미지를 창출하는 캐릭터 등에 연구나 개발, 또는 섬 지역에서의 평화이미지를 창출하는 디자인에 대한 비교연구 등을 통해 디자인 산업과 평화이미지를 결합시키는 연구가 가능할 수 있다.

영어-일어, 중국어-일어, 일어-한국어 등의 동시 번역시스템을 개발해낸 일본의 고텐샤 고기수 회장은 평화콘텐츠와 IT산업의 개발과 고텐샤의 기술을 바탕으로 제주를 중심으로 한 동시번역 시스템의 새로운 아이템 개발 등을 제시하였는바(제주일보: 2004.5.7), 이러한 연구개발사업에의 지원 역시 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여섯 분야의 연구들과 선택된 주제의 저서의 번역을 중심으로 제주평화학시리즈의 틀 속에서 외국의 하버드대학교 출판사 같은 저명한 대학의 출판사와 계약을 맺어 영문책자로 발간해 나간다면 제주평화학의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다. 2003년 7월 필자는 하버드대학교 한국학 연구소의 데이비드 맥칸(David McCann) 교수에게 공동협약에 대한 공동 출판에 대하여 5년간 50권의 출판을 제의하였는데, 그는 10년 장기 계획 하에 10년간 100권의 총서발간을 제안하였으며, 공동기금의 확보가 이루어질 경우 공식 협약체결하여 수행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러한 방식으로 평화학 연구가 출판되어 간다면 제주평화학에 대한 국제적 인식의 지평을 넓혀 나갈 것이며, 국제사회의 평화학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나. 평화연구와 평화문화 정착을 위한 영문저널의 발간

세계섬학회에서 영문 섬연구지(Journal of Island Studies)를 1998년부터 년 1

회씩 4회를 발간하였는데 재정사정 등으로 발간이 중단되어 있다. 2004년 10월 재 발간을 하기로 하였는바 이 저널을 평화연구와 평화문화 그리고 섬 문화를 특성화하는 연구저널로 방향을 잡아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이 가능하다. 특히 2004년 11월 대만의 국제섬학회(ISISA: International Small Island Studies Association) 총회에 공동 발간과 국제편집인 참여문제를 논의하여 국제적인 잡지로 발전시키는 구상도 의미있다고 본다.

이러한 구상에 따라 2005년에는 2회(5월 1일과 11월 1일) WAIS와 ISISA 등이 공동 발간하며 2006년부터 4회(2월 1일, 5월 1일, 8월 1일, 11월 1일 등)씩 발간하여 나가면서 세계의 섬과 도시들에 대한 평화와 평화문화의 연구저널로 승격시키면서 SCI급에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

#### 다. 국제평화대학원 설립 및 운영

세계평화의 섬을 지향하려면 고급 인재 양성을 가능케 하는 평화교육 프로그램이 필수이다. 평화 연구든 평화산업이든 그 목표는 평화추구를 할 바르고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은 일반시민, 대학생, 공무원 등을 선발하여 업그레이드시키는 국제지도자 양성프로그램과 청년 및 청소년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1) 2005년과 2006년도의 국제평화학교 시범 운영과 2007년도 국제평화대학원 개설 프로그램(국제지도자 교육 프로그램)

국제평화학교 2년과정은 제주대학교에서 1년간 수료하여 외국의 협약대학교에서 1년간 수학과정을 이수시킨 후 국제평화학교에서 석사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수료증을 준다. 이 경우 Transcend Peace University와 연계하거나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이나 베르겐 대학, 보스톤의 Tutfs 대학교의 특별과정, 호주의 타스메니아 대학교의 환경대학원, 싱가포르대학교의 경영대학원 등과 제휴하고 준비를 시켜나가는 방식을 혼용하면 좋을 것이며, 제주도내의 지자체 공무원이나 교육청의 해외연수의 경우 등도 이러한 프로그램과 연결시켜 운영할 경우 보다 효율적으로 고급인력 양성과 업무의 업그레이드를 도모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2005년 학기의 운영은 전반기 봄 학기 4개 강좌 개설, 3개 강좌의 수강 후반기 역시 4개 강좌 개설, 3개 강좌 수강토록 하여 학기당 6학점 12학점을 이수

하도록 한다.

우선 역사로부터의 평화학 강좌의 경우 제주4.3과 세계평화론과 갈등해결과 평화관리론 같은 강좌가 가능할 것이다. 3인의 공동 강좌로 개설하되 외국의 평화전문가와 평화운동자 등의 교수를 참여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평화문화론 1과 2로 나누어서 개설하되 전 학기는 제주도와 섬 지역의 평화문화 후반기는 한국의 평화문화를 중심으로 가르쳐도 되리라 보며, 이 틀 속에서 외국의 학자들이 참여하는 방식이 가능하리라 본다. 이 분야의 강좌는 유네스코의 문화유산과 제주해녀, 평화도시와 제주 등의 강좌를 인문대학의 전문 교수 등이 참여하여 운영한다.

예를 들어 말하면 자연으로부터의 평화학 강좌의 경우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과 환경관리, 유네스코 자연유산지역과 제주도 등을 주제로 개설하되 환경을 전공으로 하는 교수 3인이 운영하면서 해외학자, 유네스코 관계자 등으로 연사를 구성해 나갈 수가 있다.

이러한 협력형 강좌의 시험 운영은 세계심학회에서 3차례 걸쳐(1999-2001) 제주대학교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던 협력형 리더쉽 강좌를 기본 틀로 하여 이러한 그룹의 강좌와 다른 외국의 대학의 예를 참고하여 제시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는 제주대학교 교수와 학생들만으로 일반강좌로서 운영하는 것은 실패할 것이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형 강좌를 2년간 시행하면서 2007년도부터는 국내 교수진 5명 외국인 교수 5명으로 국제평화대학원을 개설하여 제주평화학 분야, 국제평화연구 분야, 국제 평화운동 분야, 국제 평화기구 분야, 국제관광분야, 평화문화, 평화교육, 평화저널리즘 분야, 동북아 평화 분야 등 다양한 전공이 가능한 국제평화대학원으로 출발한다면 그것은 가능하리라 본다. 아울러 제주대학교의 개별 교수의 경우에도 이러한 참여를 통하여 전공분야의 영어강좌를 단독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갈 교수들도 많아지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방식이 제주대학교와 제주도의 협력속에 고등교육기관의 인재(석사 학위과정)를 활용하고 국제컨벤션센터나 정상의 집 건립과 맥을 같이 하여 국제교육프로그램(평화분야와 관광분야)을 넓히면서 외국의 기관과 연계하는 대학원 수준의 시험적 교육을 운영하고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식이 적합할 것이다. 이러한 1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향후 1년은 외국의 기관으로 보내 훈련시

키고,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에 제주도나 지방자치단체, 제주대학교, 교육청 등의 해외 연수프로그램도 연결시켜 운영하면 이 프로그램의 정착에 도움을 주리라 본다.

이러한 모형을 민간대학이 운영하고 제주도가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자력 프로그램으로 발전될 때까지 오슬로의 평화연구소 등과 공동 프로그램 운영을 해 나갈 경우 국제교육기관으로의 기초를 다져나갈 수가 있다고 본다. 이를 토대로 노르웨이 출신의 요한 갈통 교수 등이 이끄는 인터넷 국제평화교육기관인 초월평화대학(Transcend Peace University)같은 방식의 대학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 대학은 2003년 2월 출범하였는데, 3개월(15주 강의)이고 다섯 과목을 개설하는데, 다섯 과목은 평화수단에 의한 갈등해결론, 안보의 비군사적 확보론, 세계갈등형태와 비폭력론, 평화인론학과 평화와 예술 등 석사학위 수준의 협력형 강좌로 진행된다. 제주도의 경우 앞으로 추구할 평화추구의 방향을 염두에 두면서 위와 같은 방식의 강좌를 개설하되 2005년부터 1년 3학기 과정으로 석사 자격증을 주는 특수대학원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며 한 학기는 오슬로의 연구소에서 교육과 현장시찰을 받게 하는 방식이 좋다고 본다. 처음에는 외국의 대학과 연계하되 지역의 대학과 협력하는 협력형 국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반시민 공무원이나 시민을 훈련시키는 방식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분야별로 프로그램을 연계시켜 운영하는 방식도 가능하리라 보여진다.

일단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네 가지 형태의 평화교육을 통한 국제교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하나는 제주 4·3관련 교육을 국제인권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식이 있어야 하며, 4·3연구소, 4·3유족회 등과 여러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안은 확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능하다면 국내외의 인권단체나 동아시아의 인권단체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이 국제적으로 여름학교에서 평화연구 등을 하는데 제주도의 경우, 오슬로 대학 등과 연계하여 운영하되 제주 4·3과 세계평화 등의 과목을 놓아서 운영하면서 평화교육의 기초를 다져나가는 방식도 하나의 방법이 되리라 본다.

둘째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관련하여 국제회의와 관광 및 섬에 대한 국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격증을 수여하는 방식이 있어야 한다고 보여진다.

이 경우 역시 국내외의 기관과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방식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셋째는 국제평화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동아시아의 평화교육 프로그램, 세계섬평화 프로그램, 여성평화프로그램, 청소년, 공무원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동아시아 지역민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이 가능하리라 본다.

앞의 세 분야의 교육을 국내외 해당 민간기관이 맡고 제주도가 지원하는 형태의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국제컨벤션센터나 대학 등을 이용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노력은 외국의 교육기관이 직접 들어오는 상황에 준비와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의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2006년 9월 조지워싱턴 대학교 아시아 분교가 개설될 경우 외국의 교육기관과 공존하면서 특화된 교육체계의 정비를 갖추거나 외국의 대학과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 등을 통해 나름대로의 생존정책을 찾지 못한다면 제주도의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은 아예 없을 것이다.

## 라. 청년과 청소년 평화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대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은 2005년은 유엔에서의 학생총회를 제주대학교에 유치하게 하며 이를 계기로 해양지역 대학 중심의 평화 캠프(섬 유엔 청년회의)로 발전시켜나가는 일이 가능하다. 모의유엔회의는 40여 개 국가들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매년 20만 명 이상의 고등학교 및 대학생들이 모의유엔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대학생들에게 유엔의 이념과 국제협력의식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유엔회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배양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전국대학생 모의유엔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모의유엔 회의는 전국 각지에서 참여하는 대학생들에게 유엔 운용의 실체를 익히고 나아가 오늘날 국제사회가 당면한 주요 문제들에 대하여 분석 및 정책적 사고를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모의유엔이라는 탁월한 수단을 통해 다인종적이고, 다문화적이며, 다자적인 환경 속에서 민주주의의 과정에 대한 실용적인 경험을 얻을 수 있다. 전국대학생 모의유엔을 개최함으로써 제주도는 “평화

의 섬 제주 이미지 재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국제 전문인력 양성에 나름대로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매년 7월과 8월 1개월 기간으로 아시아 지역 6개국이 참여하는(중국, 일본, 대만, 호주, 한국, 러시아 청소년 각 10명씩 60명) 평화캠프 프로그램으로 한국 유네스코 위원회 후원과 교육인적자원부의 후원을 받는 국제적인 청소년 캠프로 발전시켜나가는 방식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제주대학교의 과학연구소가 연구를 담당하고 제주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방식이 가능하리라 본다.

#### 마. 평화컨퍼런스의 정례화와 평화네트워크의 구축

중앙정부차원에서 제주평화포럼을 2회 개최한 결과 향후 정례화를 해나가고 국제정치 외교와 경제로 나누어 교차적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제주도의 경우 4·3컨퍼런스의 정례화(Jeju Island Massacre and Northeast Asian Peace)하고, 제주시의 경우 도시와 평화문화(City and Peace Culture), 세계잠녀학술대회(Jamneoyology) 등을 정례화함으로써 중앙정부 차원의 제주평화컨퍼런스와 조화를 이루면서 국제적인 평화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는 사업이다.

4·3컨퍼런스를 통한 국제네트워크 구축과 이를 통한 4·3의 국제적 해결과 국제기구 유치를 동시에 이루어가려는 전략인데 향후 5년간의 운영계획은 잠정적이거나 다음과 같이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4·3평화공원 완성에 대비하여 인적 자원의 육성 및 4·3인권상과 평화상 제정을 위한 국제적 협의체 구성 및 세계섬유엔기구의 창설로 연결시키는 목표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

4·3학술회의의 경우 제1회 대회는 2001년 4월 2일 제주대학교, 제2회는 2002년 4월 28일 - 5월 2일 제주그랜드호텔에서 열렸고, 제3회는 2003년 4월 24-26일 미국 보스톤의 하버드대학교에서 6개 연구기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제4회 대회는 제주 2005년 5월 9-11일이며, 제주4·3비극과 동북아의 평화: 21세기 한국의 인권과 평화이슈가 그 주제이다. 제5회 대회는 세계정치학대회가 2006년 7.9-13일까지 일본의 후쿠오카에서 민주주의는 성숙하는가?(Is Democracy working?)으로 열리는 바 제주4·3비극과 동북아의 평화:

섬민주주의는 가능한가(Is Island Democracy Surviving?)로 정하고 사전 컨퍼런스(Pre Congress)로 개최할 예정이다.

2007년 6월의 6회대회는 네델란드 헤이그에서 열 예정이며 2005년 주최기관과 장소 날짜를 확정할 예정이다. 거기에서 여는 이유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있는 헤이그에서 열뿐더러 4·3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자 해서이다. 제7회 대회는 2008년 6월 제주(국제심학회와 공동으로 하여 동북아 평화문화축제와 연계하여 3500명 규모)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며 세계심유엔기구 창설을 할 예정이다. 제8회 대회는 2009년 5월이나 6월 뉴욕에서 하버드 대학교, 국제법률가 위원회(만델라 대통령이 명예총재임) 등과 공동개최함으로써 4·3문제의 유엔을 통한 해결을 해나가고자 한다.

제주시의 경우 도시와 평화문화(City and Peace Culture) 정례화의 경우, 2005년 2월 18-20일 제1회 대회는 제주 2006년 2월 호주의 호바트 제2회 대회 2007년 2월 노르웨이 베르겐 2008년 2월 남미 코스타리카 2009년 제주시에서 개최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역량을 키워가면서 제주도의 ITOP 포럼과 연계시켜 국제기구를 만들어가는 전략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본다.

#### 4. 제주형 평화산업 육성을 위한 평화증진의 프로그램들

평화심 개념의 네 가지 측면들을 유념하면서 지금까지의 업적이나 논의를 고려하여 평화심 정책의 근간을 세워 제주도의 평화산업의 기초를 다져나갈 수 있는 정책 내용을 제시하고 실천할 시점이 지금이라고 본다. 이러한 정책내용은 당연히 도민적 공감을 얻고 중앙정부 차원, 지방정부의 차원의 일, 지역 대학과 민간의 일, 기초자치단체의 일로 나누어 일을 추진하고 전체적으로 사업들의 균형을 이루어 평화추구의 섬으로서 인적 인프라 구축과 국제적인 평화이미지 창출하는 실천계획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평화심 정책의 전체적인 틀인 제주지역의 자치와 평화를 발전시켜 나가되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10년 중기계획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수행하는 단기의 평화증진 프로그램별 실천으로 지방민 차원, 지역대학차원, 지방정부차원, 기초자치단체 차원으로 마련하여 실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가. 제주도 평화자치도의 평화섬 정책 논리; 외교도시의 가능성

제주도 평화자치도는 한국의 정치나 사회구조로 볼 때 하나의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중앙의존적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즉, 중앙정부와 국회의 지원, 정부의 예산 및 특별조직(국제자유도시 추진센터) 운영 등이 그러한데 이러한 흐름을 지역자치역량의 강화와 지역 인프라의 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방향을 잡아 나가야 한다. 제주도가 세계평화섬으로서의 이미지와 역할을 찾아나가려면 이를 밀고 나갈 수 있는 지방적 관점에서의 평화섬의 평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인재 육성 등을 포함하는 지역인프라의 구축과, 협력형 외자유치와 투자유치 등으로 자립형 경제구조를 세워나가야 하고, 정치적으로는 평화자치도(Jeju Peace Province)로 위상을 정립하여 평화추구의 역할을 세워나가야 하며, 문화적으로 제주문화의 세계화를 추진해 제주의 칼라를 유지해 나가야만 한다. 한마디로 제주의 역량을 키우되 그것이 국제적인 기준에 가능한 한 부합될 수 있는 원리를 여러 분야에서 정립하고 성숙시켜 나가야 한다고 본다.

자치구로의 위상정립을 통한 자치행정체계의 정립, 지역 자체의 검찰권 확보, 지역자체의 경찰권 확보 등을 통하여 지역 자치권과 자율을 최대화하는 준비와 실천이 필요하다. 제주도가 나름대로의 국제자유도시의 시대를 열어나가고자 하면 우선 스위스의 주정부와 같은 준 국가(Sub State)로서의 자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이루어 나가기 위해 자치권을 확보를 위한 정책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 방안도, 이러한 틀을 유념하면서 제주도 나름의 지역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주지역의 특수권역임을 감안하여 검찰권과 경찰권의 독립성과 운영권을 확보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정책 프로그램이 있어야 제주형 자치 모형을 정립하고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아갈 수 있다. 1994년 나는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가 되려면 미국이나 스위스의 주 정부 수준의 권한을 갖는 평화자치도를 제시하였다. 2005년부터 이러한 과제들이 시행되게 되어서 약간의 수정과 보완을 통해 3개국 통일연합으로서의 제주의 미래역할도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게 되었다(고창훈, 1994, 1301-1323).

여기서의 생각은 제주도는 향후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4개시를 가진 제주평화자치도로서 미국의 주정부나 스위스의 주정부만큼의 권한과 역량을

갖추어 동북아의 평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세계평화의 섬으로 인정받은 후 2014년 북한과 남한과 함께 3개국 통일한국연합국의 1원으로 격상되어야 할 것이라는 구상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2004년 후반 평화자치도의 방향을 잡는 일 역시 이러한 중 단기 목표를 염두에 두고 방향을 잡아나가길 바란다(제민일보, 7월 26, 27, 28일자).

지금 현재 제주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주도가 15개 시도의 한 도로서 있었다. 그러나 이제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이제 스위스의 주정부와 같은 권한을 가져야만 자체적인 검찰 구조와 경찰 운영을 통한 지역 치안을 유지할 수 있고, 외자유치 등의 문제에서 중앙정부 등과 협력을 해나갈 수 있는 구조로 바뀔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2004년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을 2005년 평화자치도의 지위로 격상될 때 북구의 헤이그, 오슬로, 스톡홀름, 그리고 코스타리카의 산호세 시 등의 평화추구의 역할을 모델로 하여 국제적인 평화산업의 육성 전략을 10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일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나. 여성문화의 특성화를 통한 평화추구의 프로그램: {제주잠녀} 또는 {해녀의 나라} 영상프로젝트

제주도는 삼다(三多) 중의 하나가 여성일 정도로 여성인력의 잠재력이 뛰어난 곳이라고 말해 지곤 한다. 거기다가 제주도의 해녀는 일본의 아마와 함께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 우선 그 발상이 제주도에서 약 3세기경에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조선왕조 시대 잠수행위를 미풍양속의 유교 윤리를 어기는 풍기 문란의 행위로 규정받아 억압받으면서도 제주잠녀는 그 역사를 이어왔다는 사실은 중요하고 특별한 문화 현상이라 볼 수 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비밀은 마을마다 잠수회라는 자발적 결사체가 있고, 이 조직은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일종의 민회(Citizen assembly)였다는 사실은 갑오농민전쟁 당시의 집강소보다 더 생명력이 있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섬 민주주의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정치적 의미라고 본다. 1932년 해녀 항일항쟁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잠수회의 결속력이 뒷받침된다. 일제시대 해녀들이 러시아, 사할린, 중국, 일본 등으로 출가한 출가해녀의 해외원

정 등을 통한 소득을 제주섬으로 송금하여 제주경제에 30-50% 수준에서 기여한 일은 너무도 자랑스러운 일이다. 문화적으로 제주해녀의 민요가 제주민요의 80%에 이르고 해녀와 연관된 의식 등은 한국의 판소리와 마찬가지로 유네스코의 문형문화재에 등재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적으로 남녀평등의 모델 속에 해녀가 그 중심에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2001년부터 2004년까지 3년 제주잠수의 문명사적 가치에 대한 연구를 평화연구소의 연구팀이 수행한 일이라든가 제주해녀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월드컵 기간 중인 2002년 6월 해녀축제와 세계잠녀학대회를 열어 제주 잠녀학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은 격려되어야 한다. 특히 제주해녀가 50대 중심이고 5,000명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고 일은 힘들고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점점 사라져 버릴 해녀들의 보존대책이 절실하다. 제주해녀의 기상과 당당함을 이어나가기 위해 지금의 여성정책과 연계시켜 여성인력을 세계화시키는 계기로 삼아 나가는 데서 제주형 여성 발전 모델도 가능할 수도 있다. 2002년 여성부가 제주도를 양성평등의 모델로 선정한 바 있는데, 이는 역사속에서의 제주 여성의 역할의 지대했음을 인식시킴과 동시에 강인한 여성역량의 잠재력을 키워 동아시아 지역에서 여성역할의 한 모델로 발전시키려는 뜻이 내포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제주도내에 전문적인 여성연구소의 육성과 여성인력을 특화시키는 발전모델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제주도의 여성잠재력과 여성역할을 결합시킴은 물론 고급 인력화 하고 남녀평등이 가장 잘 이루어진 노르웨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모델과 연관시켜 제주형 양성평등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노력을 여성프라자 건립 및 운영 계획과 연관시켜서 체계화시켜 나간다면 제주형 여성 발전 모델이 정립되어 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제주해녀를 통한 평화이미지 구축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최근 주목을 받았던 대장금이나 다모처럼 제주잠녀를 전체의 제주의 역사와 연관시킨 대하드라마를 통하여 제주잠녀의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함으로써 제주도의 문화와 자연을 전세계 알릴뿐더러 제주민요의 현대화의 계기를 만들고 나아가 영상산업의 근간을 만드는 정책프로그램으로 마련하여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최근 올인의 촬영장 섭지코지나 대장금이 관광객의 초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제주도가 평화문화의 정립차원에서 “제주 잠녀”를 해양문명사적 관점에서 대하 드라마를 제작하여(가제: “제주잠녀” 또는 “해녀의 나

라"로 하며 30부작으로 하되 방송국들과 논의하여 준비해 나가면 될 수 있다고 본다) 해양문명사적 관점에서 제주해녀의 자존심과 당당함을 브랜드화 하면 평화섬 정책의 이미지 창조와 문화제주의 독특성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본다. 제주도적인 것이 세계적이라고 말하는데, 제주잡녀가 가장 제주도적이면서도 세계적인 사례가 아닌가 한다(산촌문화를 대표하는 말테우리나 소테우리가 거의 없는 실정과 비교해 볼 때).

#### 다. 국제협력형 평화이벤트 및 축제 모델: 동북아 평화문화 축제

제주도의 경우 제주도의 역량과 특성을 시키는 산업이나 문화축제 모형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본다. 이 경우에도 장기적인 전망과 국제적인 협력을 통하여 인내심을 갖고 단계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일이 시급하다고 보여진다. 2004년 4·3을 기념하여 두 개의 4·3평화 국제마라톤 대회가 열린다. 이 대회가 제주4·3과 마라톤을 결합시킨 일종의 평화 스포츠 산업을 지향하는 이벤트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본다. 금년에는 주최측마다 나름의 목표가 두 대회로 개최되지만 향후에는 상호의 평가와 논의를 통하여 하나의 국제적인 협력형 이벤트로 자리 잡아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그것은 4·3문제의 갈등은 1994년 두 개의 추모제와 위령제를 하나의 도민 추모제로 합쳤고, 그것이 4·3특별법도 만들었고 4·3문제해결의 단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세계섬문화축제는 우여곡절 끝에 제주도는 2003년 10월 이 축제를 포기한다고 하였다.

필자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동북아 평화문화축제를 제안한 바 있다. 우선 제주 4·3의 비극을 승화시키는 쪽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제주 4·3은 반학살(Anti Massacre)의 의미를 갖고 거기서 인권개념이 나오고 평화문화를 추구해야 할 단서 역시 발견된다. 일본의 히로시마가 반핵을 근거로 국제적인 평화도시 연대를 구성 주도하며 그 비극을 딛고 나름의 평화문화를 일구어 가고 있다면 제주도 역시 대학살의 비극을 딛고 반 학살을 근거로 한 인권 증진과 평화문화 추구의 네트워크의 구성에 나서야 할 시점에 서있다.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면서 천혜의 항구를 지닌 싱가포르, 홍콩, 그

리고 두바이 교역도시들과 차별화 시키는 전략의 하나로 세계평화의 섬 이미지를 제기했지만 그것을 현실화시켜 나가려면 상위의 정책목표가 뚜렷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목표인 평화산업(Peace Industry or Business)의 육성이라는 틀 속에서 장단기 정책으로 구체화시켜 나가야 가능하다. 2003년 시도된 평화추구의 프로그램들을 보면 하버드대학과의 4·3평화컨퍼런스, 남북평화체육축전, 평화포럼, 그리고 컨벤션 산업이나 스포츠 산업을 통한 국제적 교류 행사들과 UNEP회의, PATA총회, ADB총회 등이 있었다. 이제 이러한 일회성, 단일성의 행사들을 연결시켜 평화산업의 근간을 마련하고 육성해야 할 때이다. 이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고리로 동북아시아평화문화축제를 제주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 제주4·3인권평화문화축제 담당단체, 그리고 탐라문화제 담당기관 등이 공동연구하여 2006년부터 2년에 한번씩 시행하여 점진적으로 국제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보는 것도 평화산업의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 경우 2003년 시행했고 금년에 시행하게 될 남북평화축전과의 결합이나 제휴 역시 바람직하다고 본다.

대략 동북아 평화문화축제는 2005년의 연구와 준비를 통해 45일 정도로 하되 크게 몇 가지를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하며 국제적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데, 잠재적인 개최는 2006년 5월 15일 - 6월 20일 개최하고 2008년, 2010년 같은 기간에 일어나가면서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축제를 발전시켜나가려면 당연히 국제협력형 산업으로서의 스포츠 산업, 공연산업, 회의 산업 등을 국제협력형으로 가져가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제주도 국제컨벤션센터가 2003년 4월 개관을 하였는바, 국제회의 산업의 근간으로 나아가게도 하고 국제회의산업의 인력을 육성하는 기관이 되도록 보다 장기적이고 넓은 안목의 육성책을 생각해 나가야 한다. 제주시의 국제관현악제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성공적이라면 그에 걸맞는 항구적인 공연시설 인프라를 갖는 목표와 더불어 단계적인 육성책이 필요한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 라. 평화기구의 유치 또는 설립: 국제기구를 가진 도시로의 발전전략

역사의 고통과 갈등을 평화추구의 전통으로 바꾸어 나간 나라들은 자기의 역할에 적합한 국제기구를 창립하거나 유치하여 평화 추구의 활동을 이끌어

왔다. 이러한 차원에서 제주도 역시 평화기구의 창립이나 유치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나가면서 실제로 유치나 창설이 성공해야 평화 섬 정책의 실질적 계기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우선 UNEP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한라산 생물권보존과 관리, 그리고 세계적 자연유산의 등재후보인 오름과 동굴 등의 보존과 관리를 할 수 있는 연구기구로서 “유네스코 제주오피스”를 유치할 수 있으므로 제주대학교가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주도에 협조를 요청하고 환경부와 유네스코에 요청하여 유치하며, 그 사무실 공간을 기존 제주대학교의 건물이나 새로운 건물을 지워서 유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추진은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가 제주대회와 같은 컨퍼런스를 하고 나서 유네스코 자카르타 오피스를 설치한 것을 사례로 삼아야 하며, 아울러 국제기구 유치의 경우 그 성격이 연구기관일 경우 연구하는데 적합한 대학교 구내가 보다 적합할 것이다. 이것은 제주대학교가 주식회사 다음을 유치하면서 그 건물을 제주대학교 캠퍼스 내에 지워주기로운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주도가 1997년 7월부터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섬관광정책포럼(Inter Island Tourism Policy Forum: ITOP 일본의 오키나와, 인도네시아의 발리, 중국의 하이난이 참여)을 문화관광부에 요청하고, 2004년 12월 총회에서 해당국가와 지역의 동의를 얻어 국제기구설치에 합의하여 제주에 설치하고, 국제섬학회(ISISA: International Small Island Studies Association)등의 협력을 얻어 유네스코의 기구로 승격을 받아나가서 섬의 유엔기구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실천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섬의 유엔기구의 설립을 추진할 경우 관광 분야에서 시작하여 제주 4·3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인권센터”의 설치를 행정자치부에 요구하고 이를 차후 유엔에 등록된 기구로 통합, 승격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2005년 이러한 기구의 신설이나 유치는 4·3을 중심으로 국제 엔지오를 결성하고 이를 UN의 엔지오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러한 등록을 계기로 세계섬지역의 인권기구로 발전시켜 나가며, 2008년 4·3평화공원에 상설화시키는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3연구를 했거나 4·3관련문제를 다루는 민간기구 그리고 대학 연구기관 그리고 외국의 개인이나 단체 공동으로 설립 및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러한 발전전략을 세우고 매년 개최되는 4·3국제컨퍼런스 등을 통하여 국제적 인정을 받아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제주도가 외교통상부에 건의하여 네팔 카투만두에 있으나 실질적인 역할이 어려워 타국 이전을 타진하고 있는 유엔기구인 “아태지역 평화군축센터 (United Nations Regional Center for Peace and Disarmament in Asia and Pacific)”을 제주도로 유치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러한 군축기구를 유치할 경우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평화의 섬 정책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이러한 기구를 창립하거나 유치하면 제주도가 국제 평화기구를 갖는 평화의 섬으로서의 방향을 잡을 수 있으므로 제주도와 제주대학교 공동의 유치위원회를 두고 일정한 연구를 거쳐 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협조를 받으면서 활동을 전개할 시점이라고 본다.

#### 마. 평화섬 국제홍보 수단의 육성과 평화이미지 제고: 평화미디어

평화섬 정책 못지않게 국제자유도시가 평화적 역할과 평화 쌓기 전통을 만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국제홍보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장기적으로 스타 티브이나 아리랑 티브이 같은 방송국의 출현과 영자 신문 그리고 다국어로 서비스가 가능한 잡지의 출현과 이를 통한 국제자유도시의 홍보와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특히 제주4·3과 관련지어 국제적 인권과 평화센터로서의 정립을 위해서는 4·3평화공원이나 4·3인권센터(가칭), 4·3평화연구소(가칭) 등의 활동이 국제적으로 알리고 이를 토대로 국제적 연대를 도모하는 방안이 모색하는 일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003년부터 제주도를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국제잡지(Peace Island)가 2004년까지 3차례 발행했는데, 2006년부터 격주간지 정도의 영자신문 등이 준비되어야 하며, 인터넷 방송국이나 인터넷 신문으로 정립되어 제주도의 평화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 바. 평화지역으로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외자유치 프로젝트: 세계평화촌(World Peace Village) 프로젝트

국제자유도시의 외자유치의 골격은 7대 선도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주로 골프장건설과 카지노유치 팬션사업 등에 지나치게 몰려있는 부분은 시정되어

야 한다. 아울러 사실상 실적도 미미한데, 다시 4대전략사업이 제시되어 더 복잡하기만 하다. 이러한 식으로 외자유치를 성공하기란 힘들다고 본다. 지금부터라도 실현가능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평화이미지 구축과 세계평화의 섬 전략에 중장기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외자유치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시점이다. 외자유치는 이익을 내는 기업인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지만 도민과 외자 투자가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목표를 지닌 프로젝트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특히 제주도민과 제주도의 입장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장기적 차별성과 경쟁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지금처럼 너무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제시하여 산만하므로 일단 두개 또는 세개로 정리를 하여 제주도민 스스로나 투자자들이 볼 때 그 추진하는 바가 분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충족시키는 외자유치 프로그램으로 모슬포 송악산 지역에 세계평화촌을 건설하자는 구상과 논의는 새삼 주목할 만한 아이디어라고 본다. 우선 그 곳이 너무나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춘 곳이라는 점이다. 아울러 그 아름다운 경관 못지않게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역사 박물관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다. 수산봉 일대 1만 2천년 전의 선사 유적, 삼의사비, 사계리의 5천년(혹자는 5만년전 이라함)의 동굴발자국 유적지, 하멜표류지, 추사적거지, 송악산 정뜨르 비행장의 20개의 비행기 격납고 유적, 제주4·3 당시의 4·28화평회담 장소, 백조일손지지와 학살터, 제2훈련소의 비행장과 한국대권도 발상지, 가파도의 고인돌 군락지 등등을 이으면 고대의 역사로부터 현대의 역사의 흐름과 이 아름다운 자연은 그 스스로가 세계평화촌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국방부가 이 지역의 60만평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1988년에는 군사비행장, 2002년에는 화순해군항 등 군사적 목적으로 쓰려는 의도를 보여주었는데, 이 기회에 세계평화촌을 건설하여 세계인이 평화문화를 공유하는 곳으로 발전시키는 안을 채택하고 그렇게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여기의 경우 너무 아름답고 유적지가 많으므로 북 유럽의 네델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등의 나라가 도시의 건물 하나하나를 예술품처럼 짓는 것처럼 가장 자연친화적이면서 경관을 중시하는 발전방식에 맞추어서 20개의 격납고를 역사유적으로 지정 복원시키는 1차사업으로 시행하면서 이 지역에 맞는 유럽식 개발방식의 도입을 하여 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발전을 채택할 때 꼭 필요한 작은 시설을 설치해 나가는 방식이 되고 나머지 땅은 그대로 보존하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고 참여할 수 있을 뿐

만아니라 제주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권장할만한 내용이라고 본다. 특히 모슬포지역은 역사적으로 군사지역으로서의 고통을 100년 가까이 감당했던 만큼 이제는 평화지역으로서 세계적인 평화촌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어 100년후를 대비해야 한다고 본다(고창훈, 1991).

#### 사. 4·3인권상과 제주평화상의 제정과 운영

세계평화의 섬 지정계획에는 가칭 제주평화상 제정과 수여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해야 할 대목은 그 상의 제정을 하는 이유와 의미 그리고 그 상이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을 어떻게 받아 나갈 수 있는 가하는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분야의 상은 훌륭한 인물의 업적을 기리고 계승하는 경우, 그리고 역사적인 일이나 사건을 기념하는 상이 있고, 국제적인 기구에서 특정한 분야의 업적을 평가하여 주는 상 등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상의 대표적인 경우는 노벨평화상이 있는데 세계평화에 기여한 업적을 가진 인물에 주어진다. 국제적인 기구에 주어지는 상으로는 유네스코가 각 분야마다 그 업적을 격려하는 이유로 제정되어 수여되는 상이 있다. 제주시가 2005년 4월 유네스코가 세계의 기초단체들인 도시를 대상으로 수여하는 평화도시 상등 여러 가지의 상들이 있다. 또한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여 그 업적을 기리고 제정된 상은 3·1민족상과 5·18인권상 등이 있고 서울 올림픽을 끝난 후 이름 기념해서 만들어진 서울 평화상 등이 있다. 아시아권에서 많이 알려진 상은 필리핀 막사사이 대통령의 업적을 기려서 수상되는 막사사이상이 있다.

제주도의 경우 평화상을 수상하려할 경우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제주4·3대학살의 발생과 이의 해결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은 소수 계층이나 약한 지역의 인권과 평화를 고양한 사람이나 기구에 상을 줄 수 있는데 이 경우 나름대로의 제정이유가 된다고 본다. 또 하나는 제주평화상으로 할 경우 그 성격이 일반적으로 섬이나 해양지역이나 남북평화 등에 기여한 사람들이나 기구를 상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그 제정이유가 일반적이어서 애매 모호해 질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이 상을 제정할 경우 국내외의 전문가나 학계의 논의를 거쳐 그 제정이유와 부문을 논의한 후 결정한다는 전제하에서, 필자의 견해로는 제주4·3인권상과 제주4·3평화상으로 하고 인권상의 경우 소수그룹이나 계층 지역적으로 소외받은 지역의 인권을 드높인 개인이나 기구에게 주어지는 것을 하나의 안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무릇 인권상이나 평화상을 새로이 제정할 경우 그 상을 제정하는 이유가 명백해야 한다고 본다. 4·3인권상의 경우 제주4·3의 역사적 의미와 그 해결과정 등이 이 상을 제정하는 명백하고, 그 상을 향후 수상함으로써 국내적이나 국제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 4·3평화상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는 4·3이 일어난 배경 중의 하나는 남북의 평화적 공존이나 통일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와 제주도 같은 섬 지역의 평화를 지향했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울러 세계평화의 섬을 지향하는 큰 흐름도 동북아의 평화를 지향하되 섬지역이나 해양지역의 기구나 인물들이 이러한 평화추구, 연구 또는 운동에 업적을 남기는 사람들로 하고 그 분야를 사회 문화 역사 예술 등의 분야로 넓혀서 생각할 할 경우 그 의미와 제정이유가 명백해질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4·3인권상을 제정하여야 나름대로의 이유가 생겨서 국내적으로 5·18인권상과 어느 정도 차별성도 생긴다고 보며, 4·3평화상의 경우에도 서울평화상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으리라 본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생각보다는 어렵고 오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심사위원회제를 국제적인 인물을 다수 포함하거나 외국의 기구나 기관을 통해 추천을 받거나 심사위원을 국제적으로 구성하여 위촉하고 운영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4·3인권상과 평화상의 제정의 경우 2005년 1년 정도는 이 문제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거쳐서 잠정 결정한 후 2006년 준비하여 2007년부터 시상하거나, 4·3 60주기가자 4·3평화공원이 완공되는 2008년을 첫 수상의 해로 잡아나가는 방식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 5. 제주형 평화추구의 원리 정립과 실천

나는 이러한 전체적인 인권과 평화쌍기로서 평화학이 하드웨어로서의 세계 평화 섬 정책 및 인프라를 평화산업(Peace Industry or Business)이라는 소프트

웨어와 연결시켜나갈 때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세계 평화의 섬을 가지면서 홍콩이나 싱가포르와는 다른 차별화된 이미지 창출이 가능하리라는 기본 가정을 갖고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러한 평화학 정립과 평화산업 육성 정책을 통해서 평화연구소, 평화교육의 운영, 평화업무에 종사하는 인재의 육성, 제주를 국제적인 평화섬으로 홍보하는 일 등 일련의 사업내용을 잡아 나가고 구체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정상의 집이 너무 외국의 지도자에만 역점을 두고 있어 밀레니움 기념관으로 전환하여 세계평화연구와 협력의 근거가 되겠다는 점은 그나마 나은 방향정립이라고 본다. 이러한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과 함께 제주지역은 나름의 평화그림을 통해 평화전통을 세워나가는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평화쌍기가 한반도와 연관시킬 때는 남북한의 평화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연결시키는 평화완충지대로(Peace Buffer Zone), 그리고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의 섬(PeaceIsland)이라는 역할을 하나 하나 갖추어 나가게 할 것이라고 본다. 스위스가 180년,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110년, 남미의 코스타리카가 56년이라는 오랜 세월동안 평화추구의 전통과 고급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도 이제 16년 평화추구의 전통에서 시작하여 아시아 지역에서의 평화적 역할 수행을 위하여 차근차근 평화쌍기를 다져나가야 하는데, 기존의 업적을 최대화하면서 건설되는 건물이나 인프라를 잘 활용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하나의 목표인 “제주도의 세계평화에의 기여”라는 큰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최근에 이르러 휴전선 부근의 철원이나 미군부대가 있었던 곳들이 평화도시 건설과 휴전선을 활용한 평화공원 건설 등이 논의되고 추진되고 있는 만큼 제주도의 경우 나름대로의 차별성을 가지면서도 휴전선의 평화공원 건설 등의 흐름과 협력하면서 경쟁할 수 있는 전략이 시급히 준비되고 실천되어야 한다고 본다.

### 가. 평화학 육성과 평화산업 육성의 내용과 로드맵

이제 유엔의 인권존중과 유네스코의 평화지향을 제주도적으로 수용하면서 제주평화학 정립과 평화산업 육성을 위한 제주도민을 위한 각 분야별 5년 단

기 과제와 10년 중기과제로 정리해 봄으로써 제주도와 제주대학교 및 민간단체들이 준비하고 이루어야 할 내용을 분야별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필자는 1994년 한국학회지에 “지방정부의 민주화: 제주도 사례에서 본 寬容性의 맥락과 전략”이라는 논문에서 단기적으로는 지방자치의 정착화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 자체체의 국가(Region State)로의 방향정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고창훈, 1994). 이러한 개념은 당시 오마에 겐이찌(Kennich Omae, 1993)가 논의하던 개념과 유사하고 대만 등에서 논의되던 지역 국가(Regional or Local State) 개념과 유사하였지만 필자는 제주도가 향후 스위스의 주정부와 같은 수준의 권한과 역할을 상정하고 지역간의 경제블록에 대한 대안으로서 준비하면서 평화적 역할을 정리하여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당연한 논지였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한국정부가 제주도 같은 지자체에게 국방 외교와 같은 영역을 전 영역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해결하면서 지역역량을 최대화하자는 것이었고 이러한 논리를 제주도에 특별히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주민들이 이를 중앙정부에 요청하여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시키면서 부산이나 일본 도시와의 경제블록 형성 문제를 제안 받았을 때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력을 준비해 나가자는 생각이었다. 당시의 한국적 상황과 제주도적 여건을 고려할 때 나의 논지는 실현가능성이 없는 이상적 논리이거나 제주도를 독립시키려는 사고 같다는 오해와 비판을 받았지만, 그러한 생각은 노무현정부에 의해 제주평화자치도의 구상으로 2004년에 논의 결정하여 2006년 실현을 앞두고 있어 10년이 경과한 지금 그 이론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본다.

이제 각 분야별로 지역주민이 제주도를 세계평화섬을 위한 제주평화학 정립과 평화산업 육성을 위한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표 1).

1) 정치적인 영역에서 지방정치의 가능성을 살리는 전략으로 지역주민과 지구당이 후보를 추천하는 권리를 제도화하면서 이를 통해 인물을 키워나갈 수 있어야 한다. 2004년의 경우 비교적 깨끗한 정치문화를 세웠고, 구 인물들을 교체하기는 하였으나 새로운 인물들의 활약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르다. 아울러 2004년 전 도지사들 간의 갈등 끝에 법원에 동반 퇴진하는 부정적인 갈등문화를 남긴 부분, 그리고 교육감 선거에서 4명 후보 모두가 부정으로 재선거를 치른 상황, 교육대학 총장선거를 둘러싼 장기적인 갈등과 투쟁은 향후 평화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있어 커다란 교훈으로 삼아 타협과 해결의 정치문화로 발전

〈표 1〉 제주평화학 정립과 평화산업 육성을 위한 평화자치도의 분야별 정책과제(2005-2014)

시간 영역	평화자치도의 정립시기 2005~2009	3개국 한국통일연합 준비시기 2010~2014
정치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구당에서 공천권 행사</li> <li>·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강화</li> <li>· 지역정책의 결정권 확대</li> <li>· 지역협상능력의 향상</li> <li>· 국제협력기구나 평화기구 유치 및 창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정치의 독자적 영역확대</li> <li>· 외교도시로서의 위치 정립</li> <li>· 섬 유연기구의 설치</li> <li>· 3개국 통일연합국에 대한 준비</li> <li>· 지역자치국가로 (Region state)의 지향</li> </ul>
행정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행정 중심적 운영체제의 확립</li> <li>· 기초-광역-중앙정부간의 협력체제 구축</li> <li>· 지방행정의 지역화</li> <li>· 행정과 시민 공동 정책수립제도 확대</li> <li>· 직업공무원제도의 도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지역 행정원리의 정립</li> <li>· 3개국 통일연합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체제의 정비</li> <li>· 시민조직 및 국제조직과의 연대와 활용</li> <li>· 직업공무원제도의 특성화</li> </ul>
법률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조직의 지방화</li> <li>· 검찰조직의 지방화</li> <li>· 조례결정권 범위 확대</li> <li>· 공평한 법률집행의 정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조직의 독립적 운영</li> <li>· 검찰조직의 독립적 운영</li> <li>· 법원조직의 독립적 운영</li> <li>· 군사·안보분야의 이외의 법률 제정권</li> </ul>
사회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언론 종교단체 등 2차집단역할 정립</li> <li>· 시민단체의 역할 제고와 세계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언론 종교단체의 역할 정립</li> <li>· 시민단체의 국제적 연대와 역할정립</li> </ul>
문화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문화의 정체성 강화 및 세계화</li> <li>· 영어의 공용화와 한글 강화프로그램 병행</li> <li>· 문화영역에의 지원확대</li> <li>· 다문화주의 포용(Multi-culturalis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문화와 전통 등에 대한 세계화 영어의 공용화와 한글강화프로그램 정착</li> <li>· 문화영역에의 독자성 유지</li> <li>·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의 정착</li> </ul>
경제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립경제체제 프로그램 전개</li> <li>· 상생적 외자유치</li> <li>· 평화산업, 첨단산업과 생명공학 영상 산업 등의 기반조성</li> <li>· 국제공항 건설 및 국제직항로 확대</li> <li>· 1차산업과 축산수산업의 특성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립경제체제의 정립</li> <li>· 상생적 외자유치</li> <li>· 평화산업, 첨단산업과 생명공학 영상산업 등의 구축</li> <li>· 국제공항 건설 및 직항로 확장</li> <li>· 1차산업과 축산수산업의 세계화</li> </ul>

근거: 1994 필자의 "지방 정부의 민주화: 제주도 사례에서 본 寬容성의 맥락과 전략"에서의 내용을 기초로 약간의 수정, 보완하여 필자가 재작성한 것임.

시켜야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한편 지방의회나 기초단체 의회들 역시 10년 이상의 세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지역 발전방향의 모색, 정책적 기능의 강화, 타협적인 정치문화의 정립에는 아직은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점에서 도의회 등이 지역정치의 가능성을 보다 탄탄하게 할 수 있도록 자체 역량의 강화 노력이 법률적이나 제도적인 권한을 강화하는 노력이 요구되어 진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정치가 지역전반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고, 평화자치도의 과제는 물론 3개국 통일 한국의 시대를 대비하여 하나의 지역국가를 목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고 국제기구의 유치 등을 통한 준외교적 기능을 수행하는 세계평화의 섬으로 발전시켜야 할 대의기관으로 자리 잡아야하기 때문이다.

2) 행정적 영역에서 2004년 12월까지 제주도평화자치도 문제에 대한 대안을 주민투표를 통한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인 만큼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데, 필자는 '평화'와 '자치'를 특화 할 수 있는 행정체충구조 개편 방안으로 제주평화자치도 (Jeju Peace Province)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논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주도가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한 제주 지역의 계층구조에 대한 개편 안이 두 가지 안으로 좁혀졌다. 현 체제를 유지하고 기능을 조정하는 점진적 개편안과 광역체제 모형을 도입하여 시·군 등을 폐지하고 하나로 통합하여 하나의 계층구조로 만들어 특별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자는 혁신적 통합적 개편 안이 그것이다. 두 가지 대안이 상충적이기 보다는 발전적인 통합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제주행정계층 구조에 대한 통합안을 제시한다. 우선 세계평화섬 발전전략을 평화추구의 시설 및 지적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국제자유도시의 이미지를 차별화시켜 나가려면 그 명칭을 제주평화자치도(Jeju Peace Province)로 했으면 좋겠다. 네델란드 헤이그는 그들의 별칭을 정의와 평화의 본거지(The Hague as the Residence of Justice and Peace)로 정하고 100년의 노력을 거치면서 세계의 법률 수도가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주도는 장기적인 목표와 지향점을 가지면서 도민적, 국민적 공감은 물론 국제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를 잘 살려주되 제주도가 이 기회에 평화도시와 자치도시로의 합목적적인 목표를 제주평화자치도(Jeju Peace Province)로 설정하여, 광역체제의 장점은 살리고, 점진적 개혁안의 2시 2군체제를 4개시(제주시, 서귀포시, 동쪽과 서쪽의 2개시)로 발전시키고, 시마다 기존의 동과 자연마을의 이름을 살리면서 행정상으로는

'구'로 확대개편 한다면, 두 가지 안의 장점을 살리면서 도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4개시로의 개편을 통해 차후에 첫째, 제주의 전 행정구역이 '시와 구'라는 명칭으로 통일됨으로써 도·농간의 심리적 차별을 없애는 평등적인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점 둘째, 각 구별로 현재의 생활권과 문화권 및 경제권을 바탕으로 광역구로 재편하여 행정의 효율화와 주민통합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 등과 서로 나누어졌던 김녕리가 주민들의 투표(1999년 7월 11일)를 통해 2000년부터 통합된 것은 좋은 예이다. 셋째, 지역구 국회의원 4명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안을 제시하는 이유는 ① 1985년 제주도에서 의뢰한 '행정구역과 계층구조의 적정화 방안'에서 주민들의 90%가 지금의 남군과 북군은 동군과 서군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바, 이러한 도민의 의견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군'이 아니라 '시'로서 동반상승의 윈윈 전략을 택해야 한다는 점 ② 역사적으로는 1915년 행정구역 개편, 1955년 제주시, 1981년 서귀포시 등 2개시 2개군 체제가 주로 일제시대와 군사시대에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졌었는데, 이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③ 2004년 11월에 정부에 의해 '세계 평화의 섬'으로 공식 지정을 받게 되므로 명칭 자체에 '평화'라는 목표와 '자치'라는 공동체적 이상을 담는다면 타 지역과 차별성 있는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다. 희망을 줄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세부사항은 민주적 과정을 통해 고쳐나갈 수 있다고 보아서이다(제민일보: 2004.7.26). 이러한 통합안의 경우 제주도와 관련기관들이 검토하여 제시된 후 도민투표를 통해 년내에 확정하고, 동쪽과 서쪽의 시 명칭과 시청 이전 장소 구로의 편성하는 일 등은 연차적으로 주민투표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간다면 이에 대한 결정이 민주적일뿐더러 불필요한 논란이나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제민일보: 2004.8.21).

이러한 행정구조의 개편을 통하여 단기적으로는 지금까지 중앙정부에 의존되는 상황 때문에 나타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불균형을 시정할뿐더러 인사·조직·정책·재무·지역개편의 방향 전 분야에서의 자율적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지방정부가 지역정부의 지역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향상시킬뿐더러, 중앙정부나 다른 나라나 지역의 자치단체와의 협상능력을 키워 나가면서 지방행정의 규칙을 찾아내는 寬容性의 전략이 필요하다. 공무원노조가 금기시 되지 않아야 할뿐더러 공무원의 실수를 용인하면서도 책

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직업공무원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시민의 참여와 활력을 수용할 수 있고 정책에 참여시키는 시민참여적 관료제를 정립해 나가야 한다. 또한 평화자치도 시대의 지역개편과 원활한 지자체간의 권한 배분 등의 과제도 해결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통일한국시대의 한 일원으로서 독립성을 지닌 행정체제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

3) 법률적인 영역의 단기적 과제는 시대에 부합되지 않는 법률을 폐지해야 할 뿐더러 공평한 법률집행의 원리가 세워져야 한다. 또한 조례결정권을 확대할뿐더러 정치나 사회·문화 영역에서의 지역화의 요구에 부응하는 법률적 준비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시민의 정책 발의권이나, 주민소환권의 도입 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경찰조직이 지방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법원·검찰조직의 지방화가 이루어져야 할뿐더러 군사·외교·안보 분야이외의 법률제정권을 가져야 하리라 본다. 중기적으로 3개국 통일한국연합의 시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법률제정권은 물론 나뉠대로의 경찰 검찰 법원조직의 체계를 갖추어 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사회적 영역에서 자율적인 역량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본다. 특히 사회를 주도하는 2차 집단인 대학, 언론 그리고 종교집단이 개혁하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역할이 없다면 제주도의 목표는 상당히 어렵거나 지체되리라 본다. 시민단체의 역할도 중요한데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방안이 나와야 하고 이에 상응되게 시민단체들 역시 사회적으로 책임이 대안창출 세력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경제적인 농협이나 신협 등의 조합의 역할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사회단체 역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가야만 자치와 자유와 평화 등 三麗思想의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제주 사람들 나뉠대로 제주평화자치도의 자치원리를 세워나가야 한다. 주한미국대사를 지냈던 그레오리 헨더슨은 1968년의 저서 소용돌이 정치학(The Politics of Vortex)에서 한국의 지방자치의 근원을 세 가지를 들었는데, 하나는 고려시대의 사찰, 다음은 조선시대의 서원, 마지막으로 제주도의 독특한 문화와 사회체계 및 고유한 제주도 언어를 지키는 제주사회의 自治性이라고 지적하였다. 바로 지금 제주도가 이러한 제주사회의 독특한 사회 문화적인 힘을 담어나갈 행정계층구조의 개편은 제주평화자치도(Jeju Peace Province)라는 해답이 나온다. 90년대 초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도시와 농촌의 통합안이 제시되었으나 주민들은 이를 부결시켰

다. 이는 남제주군 군민의 경우 발전적인 차원에서 시로 승격하는 동반 상승은 바라지만 자기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통합은 명백히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로 유념할 대목이다. 이렇듯 여기서 제안하는 4개시 개편안은 남제주군과 북제주 군민 모두가 동반 상승시킬 뿐더러 제주지역은 몇 십년간 두개 시로 인해 두개 군으로 나뉘어 지게 되어 공동체 의식을 희미하게 하는 飛地化 현상의 모순을 이번 개편에서는 풀어야 한다.

5) 경제적 영역에서의 단기적으로는 재정자립도를 강화하는 자립경제의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상생적 외자유치 전략으로 평화촌 건설, 외국의 대학, 국제 병원 및 차이나타운 건설 등 실현가능한 외자유치안의 준비가 있어야 한다. 제주도가 첨단산업이나 실버산업 지식산업 등 적합한 산업을 유치하여 제주도적으로는 산업구조의 균형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블록 형성시의 역할에 필요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정치적 역량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평화산업, 생명공학 및 영상산업 등 제주도의 자립경제 구조를 위한 투자와 준비가 있어야 함은 물론 지역항공사 설립과 국제공항 건설 및 직항로 25개 이상 개설 그리고 1차 산업과 축산수산업의 특성화와 선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전략은 향후 일본의 서부와 한국의 동·서부지역의 경제 블록을 형성하는 문제에 주체적으로 대응하는 일이 3개국 통일한국 시대에 대비한 경제적 자립구조가 완성되어야 한다. 경제적 영역에서의 자립을 이루는 일은 보다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유치와 같은 노력으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식산업의 근거를 넓혀나가는 노력은 아름답다. 최근 남원읍 신례1리 주민 전체가 제주생물종 다양성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 신례협동조합 소유의 토지 2만평을 남군에 기부채납 하는 노력 역시 돋보인다. 이러한 마을 주민의 헌신적인 노력은 제주의 다양한 육상식물, 플라크톤, 해조류, 어류 등 생물권보존지역의 생물자원의 가치를 보존하고 마을도 살아나가려는 결정으로 제주 지역 자치의 한 밑거름이 될 사례이다(한라일보: 2004.7.15.)

6) 문화적 영역에서 단기적으로는 지역문화의 정체성 강화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과 세계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동북아 평화문화축제의 육성하면서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영어의 공용화와 한글(제주말) 등의 강화프로그램을 동시에 병행시키는 정책의 채택이 필요하다. 문화의 시대인 만큼 문화

영역에의 지원확대를 통해 예술과 문화의 선진화와 특성화에 대한 정책적 안목이 절실하다. 또한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를 포용하여 제주문화, 한국의 문화 그리고 외국의 문화가 공존하는 체제가 필요하다.

유럽공동체 에라스무스 계획으로 유럽공동체간의 대학간 교류 수혜자가 2004년 100만명에 이르렀고, 이는 유럽공동체의 결성을 뒷 받침한 프로그램으로 평가받는다. 제주 역시 이러한 계통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육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육자치를 이룸으로써 4·3의 역사만이 아니라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의 교재를 쓰는 등 지역의 정체성 강화와 교육의 세계화에 필요한 적극적인 프로그램의 마련과 병행 시행이 요구된다.

#### 나. 제주형 평화추구의 실천원리

제주도민 스스로가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고 세계평화의 섬 추진을 하는 정책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지녀야 할 논리를 세 가지 원리로 제시하고자 한다.

원리 1: 제주평화학은 탐라국과 제주 역사 속에서 형성된 평화사상과 문화에 근거한 학문체계로서 평화증진의 문화를 승화시키고 평화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학문체계로서 인권고양과 평화증진에 헌신할 수 있는 인력과 인재를 키우는 데 그 바탕을 두어야 한다.

제주평화학의 근간은 역사흐름 속에서 형성된 제주평화학과 평화추구의 전통을 제주 4·3의 발생과 1980년대 이후의 해결 과정에서 인권존중의 흐름으로, 다른 하나는 1980년대 후반의 군사기지반대운동을 통한 평화지역으로의 방향 정립을 셋째는 1990년대 초반부터 지정학적인 요인에서 국제평화 교류의 장소로 자리매김 되는 지역의 현실적 흐름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제주 4·3은 2000년대 초반에 이르러 유엔의 인권존중의 협약을 실천하는 일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권의 섬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4·3사료관과 평화공원이 건설 운영되어지고, 이를 실천할 인재육성 교육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한다. 한편 세계정상들의 회담을 기념하고 확장시켜나가는 전략으로 형성된 밀레니엄 기념관은 국제컨벤션센터와 더불어 국제평화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인재양성과 연구와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 하나는 인권고양의 장으로 또 하나는 평화교류의 장으로 상호 보완하면서 향후 조성되게 될 송악산 일대의 세계평화촌과 더불어 세계평화 섬의 근간을 이루어 가야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가 평화이미지와 평화역할을 구축해 나가려면 국제기구의 유치나 창설을 통해 국제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재양성의 기틀을 만들어 가야한다. 제주대학교가 중심이 되어 유네스코 제주오피스를 유치하는 일, 군축기구를 유치하는 일, 그리고 제주4·3기구를 국제기구화해 나가는 일을 통해 평화섬의 방향을 잡아 나가야 한다.

원리 2: 제주평화학의 정립과 평화산업의 육성 사업은 제주도적으로는 지적인 평화네트워크를 쌓아 나가면서 평화문화와 전통을 공유할 수 있는 일, 한반도의 차원에서는 통일 한국 3개국연합 시대(남한 북한 그리고 제주도 공화국)의 평화확장에 도움을 주는 평화지대로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국제적으로는 국제섬사회의 연합을 구성하여 해양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나아가 섬사회 전반의 인권과 평화를 증진하는 사업을 지향하여야 한다.

제주4·3 대학살이 유엔이 금지한 양민 집단학살을 국가가 주도하여 자행하여 생긴 인권유린의 비극이었던 만큼 제주 4·3은 유엔의 인권존중의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아울러 한라산이 2002년 12월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인류의 자산으로 관리되게 되었고, 제주 동굴과 오름 등의 자연유산 역시 2006년 2월 유네스코의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 신청되는 제주자연으로부터의 평화에 부합되는 사업을 전개하여 한다. 또한 제주잠녀를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재 등재하는 사업 그리고 제주시가 2005년 4월 유네스코의 평화도시상 공모를 통해 평화이미지를 공유하려는 사업은 권장할 만하다. 이렇듯 역사로부터의 인권존중, 제주자연과 문화로부터 평화추구의 전통을 수립하는 사업은 유엔과 유네스코의 기준에 부합하는 일인 만큼 이러한 목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화추진을 위한 지적 네트워크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주4·3, 제주 평화 문화와 한국의 평화 사상, 제주해녀, 오름, 동굴, 화석, 한라생물권 보존 등의 연구와 영문책자 발간을 통하여 국제

적으로 인식과 가치를 공유하고, 피스아일랜드 북시리즈의 출판사업이나 피스아일랜드 잡지의 발간, 국제기구의 창설과 유치, 평화문화축제의 개최, 제주해녀 등의 다큐멘터리 제작 등의 일도 이러한 평화사업이다.

원리 3: 제주도민이 제주의 평화사상과 평화문화에 근거한 평화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방식은 섬의 寬容性에 바탕을 둔 협력형 리더쉽의 형성을 통해 실천하되 항상 비폭력의 방식을 통하여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면서 목표를 성취해나가야 한다.

제주평화자치도 평화를 확충해나가려면 내적으로 축전된 갈등해결과 관리를 국제적으로 적용하여 국제적 문제해결 능력을 축적해 나가야만 가능한 일이라면 그것은 제주의 선조들이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일구어온 寬容性 哲學과 이를 통한 갈등해결과 문제해결의 축적과 이에 근거한 비폭력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본다.

필자는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제주평화학의 정립과 평화산업(2005.3-2010.2)”의 육성을 준비하면서 아시아의 인권과 평화의 중심지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학술적 지역적으로 뒷받침할 연구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제주도를 세계 평화 섬으로 지정하고 제주평화포럼을 경제분야까지 확대 육성하고 남북6자회담 사무국의 설치와 군축관련 국제기구 유치를 통해 평화의 섬의 발전방향을 잡아 나가는 흐름에 대한 지역적 화답이다. 제주시의 경우 2005년 4월 UNESCO 평화도시상 공모를 계기로 도시와 평화문화(City and Peace Culture) 회의를 해양지역 도시들끼리 교차 개최함으로써 유네스코의 사회·문화·환경적인 도시의 발전방향을 공유하면서 평화도시로서의 국제적 이미지를 쌓아 나가는 일도 같은 차원이다. 제주대학교 역시 청소년, 대학생, 시민을 위한 국제평화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국제평화대학원을 준비함으로써 평화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준비하려는 움직임도 그러하다. 이러한 준비와 함께 제주대학교에 UNESCO 제주 오피스를 캠퍼스내에 유치하여 제주한라산 생물권 보전지역의 관리와 동굴과 오름 등 자연유산의 보존과 관리 연구의 국제연구기관을 갖게 된다면 더더욱 의미를 갖는다. 문화예술단체 중심으로 제주4·3예술제, 탐라문화제의 제주도적인 내용, 세계섬문화의 차원에서 대

표성이 있는 해녀문화의 결합과 영상, 음악, 미술 분야를 아우르는 동북아평화 문화축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일도 제주 평화문화의 가능성을 키우는 일이 될 것이며, 남북평화축전과도 자연스러운 연대가 가능할 것이다. 2003년 영문국제 잡지 평화섬(PeaceIsland)이 발간되었는데, 이 역시 평화적 이미지를 높이는 국제평화미디어로 이어진다면 제주 평화 섬의 국제적 인정과 평화네트워크 결성에 도움을 줄 것이다. 2004년 봄 불교계와 제주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4·3유적지 등을 포함한 평화순례가 이루어져 4·3의 원혼을 달래면서 평화쌍기의 의미를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노력 역시 평화섬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다. 서귀포시의 밀레니움 기념관, 제주시의 4·3평화공원, 그리고 향후 모색하게 될 서쪽시의 세계평화촌 건설 등의 인프라 구축 그리고 동쪽시의 경우 제주민속촌과 해녀박물관 등의 평화문화의 근거지를 평화자치도의 4개시 모든 주민들이 자치역량으로 이루어 간다면 그 모든 것이 평화자치도의 인프라요 전통이 될 것이다. 스위스의 제네바에 유엔본부가 있고, 취리히는 FIFA 본부가, 로잔은 IOC 본부가 있는 평화도시로의 완성에는 스위스인들의 자치정신과 이를 토대로 한 170년 이상의 평화추구의 전통과 시민문화의 업적이다. 제주평화자치도의 미래모형은 동등한 4개시(市)가 선열들이 일구어 온 寬容性的의 哲學과 平和文化的의 복원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다. 자기와 다른 신념체계나 생활방식을 차별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공생공영의 입장에서 수용하는 태도가 寬容性 哲學이라고 볼 때, 제주신화의 구조나 민요, 잠수회칙 등은 이를 반증해 준다. 이러한 寬容性的의 철학을 바탕으로 우리의 선조들은 척박한 환경의 악조건을 딛고, 三無의 전통을 바탕으로 三麗(自由, 平等, 平和)文化를 승화시켜왔다. 비록 일제식민지와 4·3을 겪으면서 훼손되었으나, 1988년 4·3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송악산 군사기지 반대운동, 1991년 국제정치 교류의 평화 섬 역할이 합쳐지고 1994년 4·3도민 합동위령제의 성사와 2000년 4·3특별법의 쟁취를 거쳐 다시금 새롭게 제주평화문화의 틀을 형성해가고 있다. 최근 세계의 평화 섬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여러 분야의 여러 계층에서 나타나는 만큼 이를 제주평화자치도(Jeu Peace Province)의 역량으로 승화시켜야 할 때이다. 선조들이 일구어 온 제주인들의 三麗文化를 寬容性的의 哲學으로 성숙시켜 자치를 이룰 때 세계평화에 공헌하는 제주인이 될 수 있다.

## 6. 결 론

나는 1982년 9월22일 제주대학교 교수로서의 생활을 시작한지 22년간 모색한 이론적 탐구와 현실세계에의 참여경험 그리고 외국의 섬과 도시에의 관찰과 국가정책의 흐름 등을 평화섬의 개념으로 집약하고 거기에서 제주평화학의 나무가 자라날 수 있고 제주형 평화산업의 기반도 형성될 수 있다는 제주 사람들에게 대한 희망적인 전망을 이 논문에 담아보려고 하였다. 나는 1992년 4월 당시 4·3연구소 소장으로서 다량쉬굴에서 4·3 당시 학살당한 민간인 희생자 11명의 시신을 세상에 발표했을 때 깊은 충격과 절망을 경험했다. 그러나 그 다량쉬 슬픈 노래로부터 4·3이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을 가졌다(고창훈, 1992). 그 이후 1994년 4·3합동위령제를 통하여 제주도 사람들도 타협을 통해 갈등을 풀어나가는 평화문화를 쌓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것이 섬사람들의 寬容性의 철학의 단초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1986년부터 10년간 나는 조직이나 갈등의 현장에 참여한 경험이 10개 사례 정도이다. 직접 참여하거나 간접적인 참여를 했는데 4·3합동위령제의 성사는 그 대권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경험에 제주도 사람들의 가능성을 읽어서 1994년 寬容性의 맥락에서 제주도 평화자치도에 관한 구상을 발표하였다. 10년이 지난 지금 중앙정부가 그 구상을 받아들여 2005년부터 시행하려 한다. 나는 이 구상의 실현을 기다리면서 2002년 씨알의 소리와 4·3컨퍼런스 등에서 제주도 평화자치도 이후에는 결국 3개국 통일한국 연합(United Three States of Korea: 남한 북한 그리고 제주도 공화국)으로 가야하고, 제주평화자치도는 그 규모와 인구는 1%를 조금 넘지만 미래의 통일한국에 세계평화의 섬으로 기여하는 하나의 일원으로 발전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통일한국의 중립평화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창훈, 2002). 따라서 평화자치도는 2005-2014년까지 10년간 시행하면서 이에 대한 전단계로 시행하면서 세계평화의 섬으로서 제주평화학과 평화산업의 육성을 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희망이 계획한 것보다는 더디게 이루어질지 모르나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전망에의 믿음은 확고하다. 그 희망을 이루어갈 수 있느냐 여부는 제주도민, 특히 필자를 포함한 지식인 그룹이 있는 대학이나 언론인, 종교인 그리고 시민단체 종사자 등의 역할과 헌신적인 노력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및 국제적인 협력에 달려있어서이다.

## 참고문헌

- 고창훈. (1989). 4·3민중항쟁의 전개과정과 성격. 「해방전후사인식4」. 서울: 한길사.
- \_\_\_\_\_. (1991). 제주민중항쟁의 사회·경제적해석. 「제주항쟁 창간호」. 서울: 실천문화사.
- \_\_\_\_\_. (1993). 김영삼정부의 행정개혁. 「한국사회와 행정연구4」. 서울: 대영문화사.
- \_\_\_\_\_. (1994). 미군정시대의 정책형성과 집행과정에서의 주민과 정부의 갈등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논문집」.
- \_\_\_\_\_. (2002). 세 국가 한국연합. 「씨알의 소리」, 통권 164호 1·2월 합권호.
- 고창훈·김진호(1994). 지방정부의 민주화: 제주도사례에서 본 寬容性의 맥락과 전략. 「한국행정학회보」, 제28권 제4호.
- 고창훈·한석지. (1992). 제주개발법의 쟁점과 정책과제. 「공간과 사회2」. 서울: 풀빛사.
- 고창훈·이경원·김진호(1997). 한국의 정치체제와 지방의회의원의 역할. 「지방자치연구」, 5(2).
- 서영진·김성. (1994). 「지방경영시대의 선택」. 서울: 나남출판사.
- 정하은. (1989). 들어켜본 4·3사건의 과거와 현재. 제주사회연구 창간호(제주사회연구소편). 서울: 역사비평사.
- 고창훈. (1998). Ocean Tolerance and A Model for Island Development: Phenomenological Synthesis of Island Pragmatism and Ocean Frontiership. *The Journal of Island Studies*, Vol.1. No.1.
- \_\_\_\_\_. (1998). Asia Island Struggle and Collaborative Democracy Model: 2·28 of Taiwan, 4·3 of Jeju and 5·18 of Kwangju. *5·18 Anniversary Academic Conference of Kwangju 5·18*. (presentation).
- \_\_\_\_\_. (1999). A Survival Stratgy for Islands: A MODEL FOR CHEJU-DO INTERNATIONAL FREE ZONE: PRACTICAL TOUGHTS ABOUT GOAL SHARING BETWEEN ISLANDERS AND FOREIGN INVESTORS. *The Journal of Island Studies*, Vol.2. No.1.

- \_\_\_\_\_. (1999). Island : Kernel and Network of Its Civilization. *Voice of The People* , Vol. 149. July/Aug.1999.
- \_\_\_\_\_. (27. 2000). The Resistance of the People and the Government's Countermeasures: The Historical Flow and Significance of the studies from the 1000years in Jeju Island. *The Journal of Island Studies*, Vol. 1. No.1.
- \_\_\_\_\_. (2000). Remaking, Restructuring, Recreating Social Images of Jeju Island. *The Journal of Island Studies*, Vol. 1. No. 1.
- \_\_\_\_\_. (2000). Framework and Logic of Peace Island Concept, *presentation article at International conference, Co-prosperity of Islands and Continents: Challenges and Responses for their Cohabitation*, Oct. 14, 2000. Cheju National University.
- \_\_\_\_\_. (2001). Some Changes of Village Community according to Experiences of Jeju Sasam Massacre. *Korean Cultural Anthropological Journal*, Vol. 34. No.1.
- \_\_\_\_\_. (2003). USA Government's Responsibility on Jeju Massacre between 1948 and 1949: Jeju Islander' Perspective. *The First Conference on Jeju Sasam Uprising and Fast Asian Peace: International Legal Issues and Human Rights in the 21st Century of Korea*, at Harvard Univ. of Boston: April 24-26.
- \_\_\_\_\_. (2003). Some Experiences and Observation on Jeju Sasam Truth Finding Movement(1983-2002), *Presentation article at conference of Jeju Sasam Solidarity*, Jeju, June 10, 2003.
- \_\_\_\_\_. (2003). Collaborative Leadership Model in Korean Democracy: Two Trial Model of 1997 and 2002 Presidential Campaigns and Elections. *presentation article at IPSA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June 29 July 24, 2003 at Durban of South Africa.
- \_\_\_\_\_. (2004). Jeju Island Massacre and Peace Industry: Upon Criteria of UNESCO Peace City, *presentation article, March 26, 2004 at Jeju City Conference*.

- Ankerl, Guy. (1994). *Tolerance: variation Of The Concept According To Different Civilizations.*
- Evers, Katinka. (1994). The Nature Of Tolerance. A paper presented to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emocracy and Tolerance" 27-29 September, Seoul, Korea.
- Francesco-Margiotta-Broglio. (1994). *Law And The Tolerance.*
- Kamba, Angeline S. (1994). *Tolerance-Africa's Responce to The Challenges Of Pluralism And Diversity.*
- Kennichi, Ohmae. (1993). The Rise of The Region State. *Foreign Affair.* March/April.
- Latham, Eva. (1994). *Tolerance As Indispensable Element Of A Culture Of Peace, Democracy And Human Rights.*
- Stouffer, Samuel A. (1995). *Communism, Conformity, and Civil Liberty.* New York: Doubleday.
- Sullivan, John L., James Pierson, George E. Marcus. (1982). *Political Tolerance and American Democracy.*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